

2015년 통권 제 23권 제 1호

2015年度 史學專攻 春季 古蹟踏査



亞 洲 大 學 校

목차

- 답사 일정
- 답사를 준비하며
- 우리가 가는 길
- 지역개관 (논산, 부여, 공주, 홍성, 예산)
- 좌절된 꿈...곧은 뜻, 뜨거운 피... 아직 살아 숨 쉰다.

<고혼으로 살아 숨 쉬는 망국의 이야기>

1. 황산벌 전투
2. 부소산성과 낙화암
3. 궁남지

<피탈, 그러나 부흥의지는 아직 살아 숨 쉰다.>

1. 우금치 전투
2. 공산성
3. 송산리 고분군
4. 숙모전

<죽은 뒤에 핀 꽃>

1. 홍주 의사총
2. 성삼문 유허지
3. 여사울 성지와 이존창 생가터

사나래 세미나

답사 일정

<p>3월 26일 목요일</p> <p>1일차</p> <p>08:50 원천관 앞 집합</p> <p>09:15 아주대학교 출발</p> <p>11:15 ~ 12:00 중식</p> <p>12:00 ~ 12:35 백제 군사 박물관</p> <p>12:35 ~ 13:00 황산루</p> <p>13:00 ~ 13:40 충장사, 계백장군 묘</p> <p>14:40 ~ 16:30 부소산성(낙화암)</p> <p>16:40 ~ 17:15 궁남지</p> <p>18:20 ~ 19:20 석식</p> <p>19:20 ~ 1:00 사나래 세미나 및 레크레이션</p>	<p>3월 27일 금요일</p> <p>2일차</p> <p>07:30 ~ 08:20 기상 및 조식</p> <p>08:30 ~ 10:00 이동</p> <p>10:00 ~ 10:15 우금치 전적</p> <p>10:30 ~ 12:00 공산성</p> <p>12:00 ~ 12:40 중식</p> <p>13:00 ~ 13:40 송산리 고분군</p> <p>14:10 ~ 16:30 숙모전</p> <p>18:30 ~ 19:10 석식</p> <p>19:10 ~ 특강 및 레크레이션</p>
<p>3월 29일 토요일</p> <p>3일차</p> <p>07:40 ~ 08:40 기상 및 조식</p> <p>08:50 ~ 10:00 이동</p> <p>10:00 ~ 10:20 성삼문 유허지</p> <p>10:40 ~ 11:20 홍주 의사총</p> <p>11:30 ~ 12:30 중식</p> <p>13:20 ~ 13:35 이존창 생가터</p> <p>15:35 아주대학교 도착</p>	

답사를 준비하며

사학 전공으로 입학하고 어느덧 3년을 맞이하는 대학생활 동안 수차례의 답사에 참여하였고 기획하는 학우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직접 답사를 기획하고 총괄하는 답사준비위원회의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2015년 학술국이 강화되고 춘계답사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중압감에 잘 해낼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춘계학술답사는 사학과에서 일 년 중 가장 큰 행사이며 동시에 신입생들에게는 대학에 와서 처음 경험하는 학과의 행사입니다. 그만큼 많은 신입생 및 재학생들의 기대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2015년도 회장을 맡게 되면서 가장 먼저 준비한 것이 춘계학술답사입니다. 보다 나은 답사가 되기 위해 방학 동안 2차례에 걸친 사전답사를 다녀오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직접 발로 뛰어다녔습니다.

이번 답사 지역은 충청남도 일대입니다. 춘계답사에서 충남 지역의 답사는 2012년 이후 3년 만에 이루어지는 답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충남 지역 답사라고 하면 백제 문화권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이번 답사는 단순히 충남 백제문화에 대한 답사가 아닙니다. 저희는 백제에 시대를 한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주제를 선정하고 그 이야기에 맞는 장소를 시대를 초월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올해 춘계답사는 2012년부터 시도된 스토리가 있는 답사를 한층 강화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단순한 동호회에서 여행가는 것이 아니라 사학전공자들의 답사이기 때문에 보다 깊이 있는 답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썼습니다.

올해부터는 학술국이 대폭 강화되면서 동시에 요록의 질도 높아지도록 성심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첫해인 만큼 많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하고 또 너그럽이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분명 아직은 스토리적인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겠지만 분명 3~4년 뒤에는 한층 완성도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답사는 단순히 유적지에 가서 백과사전에 나열된 지식들을 습득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라는 것이 동시대 또는 후대의 사람들에 의해 기록된 이야기인 만큼, 답사도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이번 춘계학술답사를 마치면 마치 책 한권을 읽은 듯 한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답사를 참여하시면서 개개인의 만족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답사에 만족을 하셨다면 함께 준비해준 저희 답사준비위원회 ‘늘봄’ 학생회 여러분께 많은 칭찬을 해주세요. 만약 만족을 못하셨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한 노력에 많은 박수

쳐주시길 바랍니다. 많이 부족한 답사준비위원장을 맞이해 고생했을 저희 답사준비위원 학술국장 윤하, 알찬 답사가 되기 위해 멋진 요록을 만들어주고 동시에 더 즐거운 레크레이션을 짜기 위해 고생한 기획국장 주언 오빠, 춘계답사를 비롯한 학과 행사를 누구보다 빠르고 멋지게 꾸며서 홍보해주는 홍보국장 한솔이, 매번 회의 때마다 회의록 정리해주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을 알려준 사무국장 수경이, 세미나 준비로 정신없는 사나래, 그 외에 사학과에 활기를 주는 바우와 개탐까지 모두 감사드립니다. 또한 답사 준비과정에서 여러 조언을 아끼지 않고 해주신 교수님들, 선배님들과 많이 부족한 저를 불평 없이 묵묵히 도와준 학생회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어느새 고학번이 되어버린 동기들, 매번 고비마다 넘치는 도움을 받고 큰 의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연말부터 저를 많이 챙겨주고 항상 바로잡아주는 저의 든든한 버팀목, 영원한 메이트 지연언니한테도 많은 칭찬과 박수 부탁드립니다. 답사에 참여해주신 모든 사학과 학우 여러분들이 즐거운 답사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사학과 학생회장 13학번 김지영

우리가 가는 길



구분	장소	구분	장소
3/26(목) TP1	논산 백제군사 박물관	TP7	국립 공주 박물관
TP2	부여 부소산성, 낙화암	TP8	숙모전
TP3	공남지	3/28(토) TP9	홍성 홍주의사총
3/27(금) TP4	공주 우금치 전적	TP10	성삼문선생 유허지
TP5	공산성	TP11	예산 여사울 이존창 생가터
TP6	송산리 고분군 (무령왕릉)		

좌절된 꿈...꿈은 뜻, 뜨거운 피...아직 살아 숨 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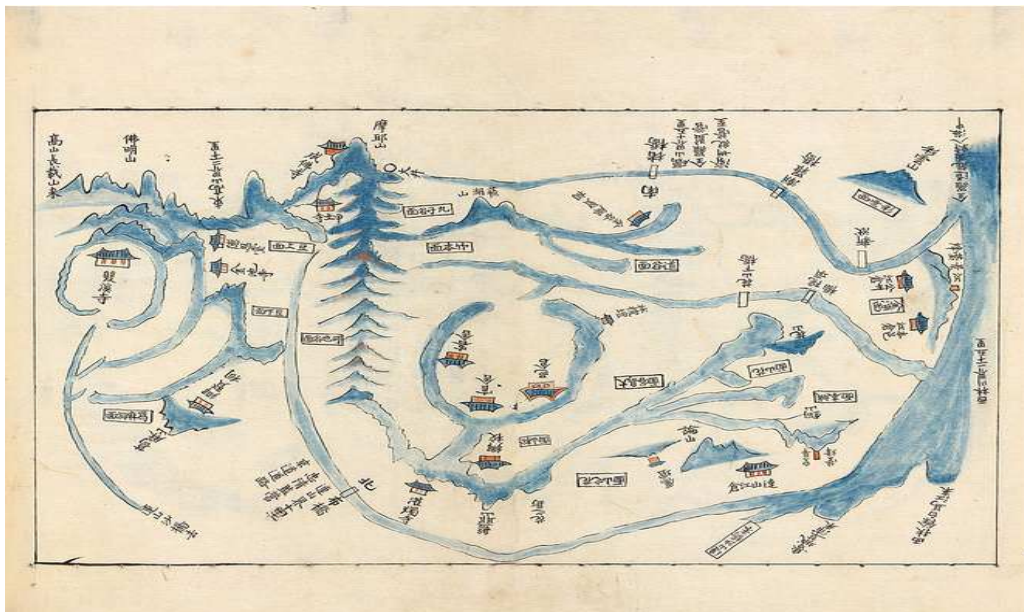
이번 2015년 춘계학술답사 지역은 충청남도 일대입니다. 충청남도라고 하면 흔히 백제 문화권을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아마 이는 백제의 두 번째 수도와 마지막 수도인 공주와 부여가 모두 충남지역이기 때문이겠지요. 우리의 역사 속에서 백제는 굉장히 친숙한 듯 하면서도 낯선 국가입니다. 여러 가지 기이한 설화들은 많이 전해지지만 그 무엇 하나 뚜렷한 이야기가 없고 유물과 문서들조차 미비합니다. 이는 백제가 신라에 의해 한반도 남부 지역이 통합되면서 패자의 길로 들어섰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희는 이 부분에서 ‘좌절된 꿈’이라는 주제를 착안해 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충남지역에서 꿈이 좌절된 것이 백제가 멸망한 것 밖에 없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때문에 시대를 초월해서 좌절된 우리의 역사 속 이야기들을 일차별로 소재목을 달고 특징별로 묶어서 하나의 스토리로 연결되게 구성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관통해서 저희가 이번 답사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비록 그들의 꿈은 좌절되었지만, 꿈을 향한 그들의 끈은 뜻과 뜨거운 피는 아직 까지도 우리 곁에서 살아 숨 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훈으로 살아 숨 쉬는 망국의 이야기’에서는 백제가 결국 신라와 당의 연합군에 의해 멸망하고 좌절했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설화로 전해지며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삼국시대를 배경으로 한 설화가 의자왕과 삼천궁녀, 계백장군과 오천결사대, 서동설화 등등 백제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가 대중적으로 유명한 만큼 그들의 이야기가 아직까지 살아 숨 쉰다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이 날은 주제가 주제인 만큼 백제 문화에 한정지어 그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피탈, 그러나 부흥의지는 아직 살아 숨 쉰다’에서는 나라와 왕위 등을 빼앗겼지만 다시 되찾으려는 그들의 의지가 살아 숨 쉰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날은 구한말부터 조선, 백제에 이르기 까지 여러 시대를 넘나들며 이야기를 진행할 것입니다. ‘죽은 뒤에 핀 꽃’에서는 그들의 꿈은 죽음으로 좌절되었지만 그들의 꿈을 향한 의지는 죽은 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마침내 살아나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충남 지역으로 답사를 간다고 해서 백제의 유적지를 기대하셨다면 실망이 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가는 답사인 만큼 틀에 박힌 답사지역을 돌며 교과서에 서술된 이야기들을 전달하는 것 보다는 새로운 관점을 갖고 새로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보다 보람찬 답사여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춘계학술답사를 함께하는 여러 신입생 및 재학생 분들도 앞으로는 역사를 남들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보는 기회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논산 지역개관

14김태훈



▲ 『호서읍지』에 기록된 은진현(지금의 논산)의 그림식 지도

'은진과 강경은 하나의 촌으로 충청도와 전라도의 육지와 바다 사이에 위치하여 금강 남쪽 들에 하나의 도회지를 이루고 있다. 바닷가 사람이나 산골 사람이나 모두 여기에서 물건을 교역한다. 해마다 봄과 여름이면 고기를 잡고 해초를 뜯는데 비리나가 마을에 넘치고 튼 배와 작은 배가 밤낮으로 두 갈래진 항구에 담처럼 벌여 있다. 한 달에 여섯 번씩 열리는 큰 장에는 먼지역, 가까운 지역의 화물이 모여 쌓인다.' 이 문단은 택리지에 나오는 논산에 관한 부분입니다. 은진과 강경은 현재 논산시 안에 있는 하나의 읍과 면으로 되어있습니다. 논산은 택리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과거에 서울까지 가려는 나라 안팎의 온갖 물건이 금강을 통해 올라가기 위해 모여드는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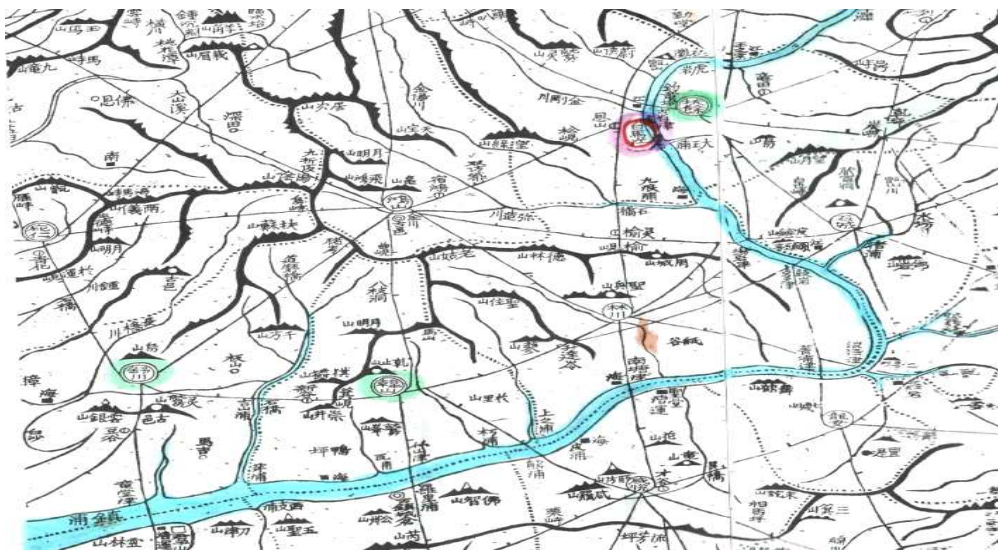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논산은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연산, 은진, 노성, 석성 등 4현이 위치하였고, 1912년 4현을 4군으로 변경하였다가 1914년 4군을 병합하여 논산군을 설치하였습니다. 이후 1996년 3월 1일 시로 승격되었으며, 2003년 9월 19일 두마면이 계룡시로 분리되었습니다. 지리적으로 동북쪽으로 계룡산, 동남쪽으로 대둔산이 있고 서쪽으로는 노성천과 논산천이 흐르는 논강평야가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풍수지리적으로 최적의 자연환경인 배산임수의 지형을 가지고 있어 지리적·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과거 이 지역을 얻기 위해 많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지리적으로 매우 좋은 논산에 ‘망국의 이야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춘계 답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논산은 지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곳이지만 역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특히 이번 답사 주제인 망국이라는 테마와 연결해서 충청도와 관련된 망국으로 대표되는 나라, 백제의 망국역사를 잘 보여주는 유적이 있는 곳이 바로 논산입니다. 논산에 직접 가서 보는 황산루, 황산벌, 충장사, 계백장군 묘와 다음에 나오는 황산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나당 동맹군에 의해 패망하기 직전 백제의 모습을 더욱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부여 지역개관

14 김정엽



▲ 대동여지도의 현 부여군과 서천군 일부

백제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수도로 백제 중흥의 꿈을 담았던 수도, 사비는 현재 충청남도 부여군으로 불리며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백제의 성왕은 웅진에서 사비로 천도하는 과정에서 국호를 남부여로 고쳤는데, 여기서 부여라는 지역명이 유래되었습니다. 부여의 남쪽으로는 금강이 흐르고 동쪽에는 교통의 요지인 논산시와 접해있으며 북쪽으로는 공주시와 청양군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여의 자연환경과 지리적 요소는 사비가 백제의 수도로써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백제는 위례, 웅진, 사비 순서로 수도가 계속 남하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역은 한 쪽으로는 넓은 평야지대가 있고, 주위엔 강을 끼고 있는 배산임수의 지형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부여는 금강 유역에 큰 규모의 평야가 발달되어 있어, 백제 부흥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도읍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부여의 대표적 유적지는 고인돌을 비롯한 선사유적이 있으며, 정림사지 5층 석탑과 금동관세음보살입상 등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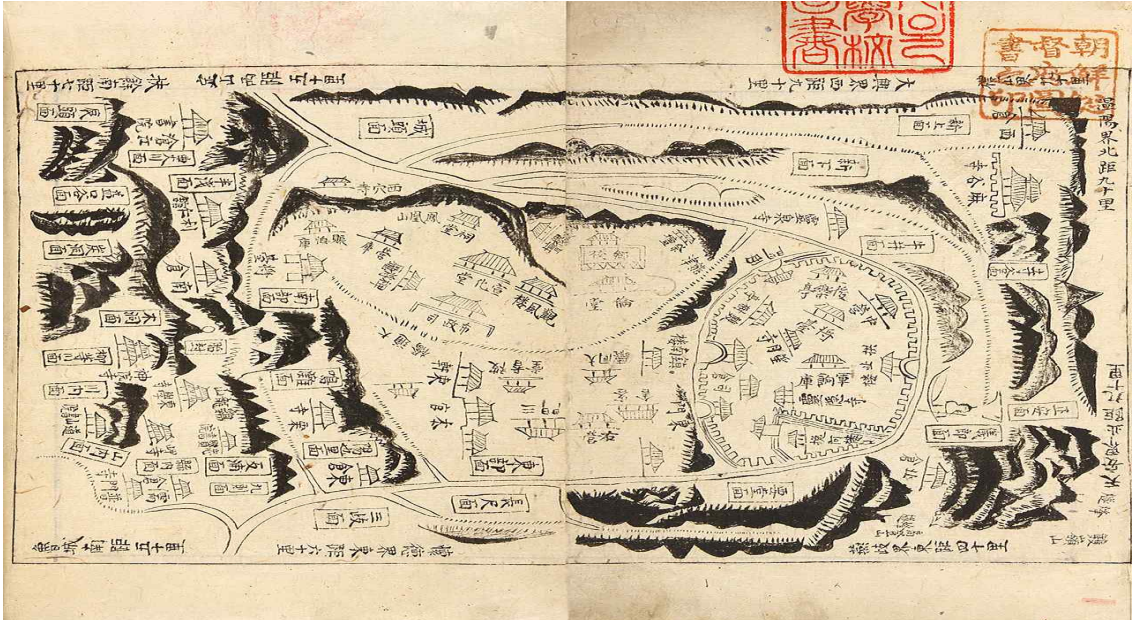
우리는 부여에서 백제 중흥에 대한 성왕의 열망과 백제의 비극적 패망을 동시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왕은 수도 부여를 중심으로, 외교관계를 회복하고 문

화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백제의 국가적 위상을 높이려는 노력을 보였습니다. 또한 땅에 떨어진 왕권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힘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신라의 배반으로 나제동맹이 파기되자, 이에 격분하여 신라의 관산성으로 쳐들어간 성왕은 싸늘한 주검이 되어 백제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무왕과 의자왕의 노력에도 지배층의 분열은 더욱 커져갔고 궁중 내부에는 간신들만 남아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 결과 나당연합군의 공격으로 백제의 사비성은 허망하게 함락되었고, 웅진으로 피신한 의자왕마저 항복함으로써 백제 500년의 찬란한 역사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백제의 마지막 수도였던 부여에 주목함으로써, 한 국가의 멸망과정에서 나타나는 모습과 이로 인한 교훈을 얻으려 하였습니다. 부여에서 우리들은 백제 중흥의 노력과 좌절, 그리고 멸망까지 백제의 다양한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부여 지역의 답사를 통해 다시 일어서려 발돋움했지만 결국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진 백제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공주 지역개관

14 김정엽



▲ 『호서읍지』에 수록된 공주 지역의 그림식 지도

고구려의 남하정책으로 위례성이 함락되자, 순식간에 수도를 잃은 백제는 임기응변으로 두 번째 도읍을 정했습니다. 바로 웅진이었습니다. 현재 충청남도 공주시에 자리하고 있는 웅진은 성왕의 사비 천도 이전까지 짧은 시간이었지만 백제의 중심지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고구려의 침략으로 수도를 잃은 문주왕이 두 번째 수도를 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고구려의 위협이었습니다. 이 때 문주왕은 계룡산과 차령산맥으로 둘러싸여 있고 금강 유역의 평야가 넓게 펼쳐진 공주지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는 군사적 방어뿐만 아니라 교통과 경제적으로도 좋은 입지 조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록 백제의 수도로서 보냈던 시간은 짧았지만, 웅진은 사비천도 이후에도 주요 도시로서 기능을 계속 수행했습니다. 웅진성은 사비성과 거리가 멀지 않고, 실제로 이곳에 주둔한 병력이나 성의 규모로 보았을 때도 백제의 국가 운영에 있어서 중심 기능을 담당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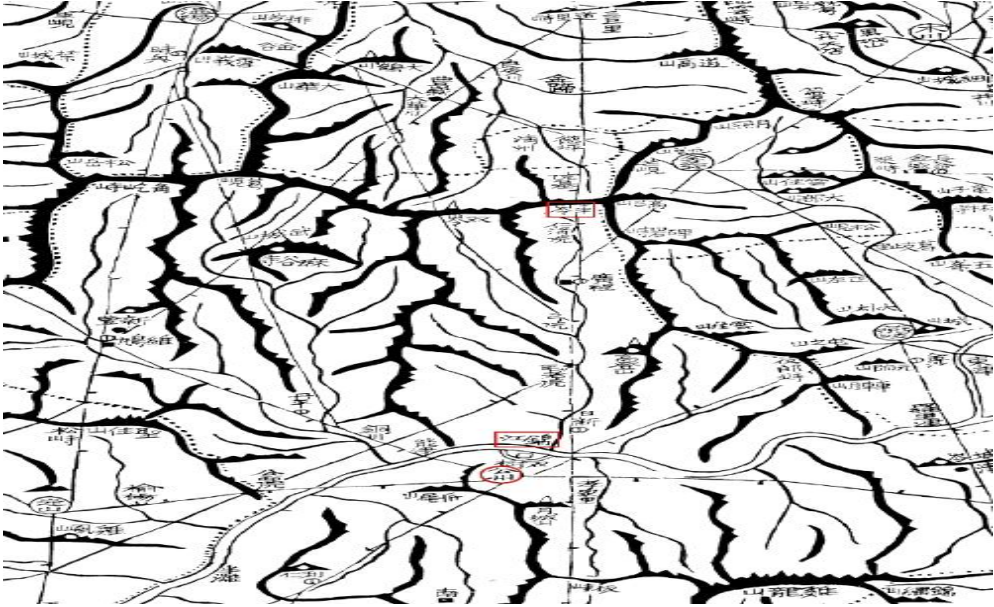
한강 유역을 빼앗긴 백제는 중앙 귀족들 간에 권력 싸움이 잦아졌고, 문주왕에 이어 여러 왕이 차례로 귀족에 죽임을 당하는 초유의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이러

한 어려움 속에서 동성왕은 신라와 손을 잡고 고구려에 맞서 싸우는 등 백제를 다시 일으키기 위한 부흥운동을 벌였습니다. 이러한 동성왕의 노력은 무령왕으로 이어졌습니다. 백제의 대내외 상황이 가장 악화된 때에 즉위한 무령왕은, 어린 시절 왕이었던 개로왕이 죽는 모습과 수도 한성이 무너지는 현실을 보며 자랐습니다. 국력의 중요성을 실감한 그는 중국과 국교를 맺고 문화교류에 힘쓰는 등의 정책을 폈으며, 지방에 특수 행정 구역인 22담로를 설치하여 중앙의 통제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무령왕의 노력으로 백제는 점차 이전의 안정된 모습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백제의 웅진 천도는 고구려의 침략으로 갑작스레 수도를 잃은 백제의 임기응변이었습니다. 그러나 웅진에서 백제는 다시 일어섰고 고구려를 막기 위해, 신라와 동맹을 맺을 수 있을 만큼의 국력을 회복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백제의 모습을 통해 아무리 힘이 땅에 떨어진 국가라도, 명석한 군주를 만났을 때 중흥을 이룰 수 있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주지역 답사에서는 피땀 흘려 백제를 살리려 했던 동성왕과 무령왕의 모습을 떠올려 봄과 동시에 이들의 중흥 의지를 느껴볼 수 있습니다.

홍성 지역개관

14 구본희



▲대동여지도의 홍성군 일대

충청남도 홍성은 최영, 한용운, 김좌진 등 우리의 역사에 커다란 발자국들을 남긴 충성스런 열사들의 고향이라는 점에서 충절의 고장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1914년 조선총독부의 부군면 통폐합 과정에서 홍주군과 결성군이 통합되어 지금의 홍성군이 되었고, 그때 서부 충청권의 중심 도시 역할을 했었던 영향이 현재까지 남아있습니다.

홍성의 역사는 삼한시대까지 올라다 볼 수 있는데, 마한의 감해비리국과 사로국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지리적으로 좋은 지역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동여지도에 표현된 홍성군 일대는 대부분의 산줄기가 남동쪽으로 뻗어 있고 하천이 가로지르는 배산임수의 지형이 나타납니다. 통일신라 때에는 홍성읍이 읍터로 자리잡혀 있었고 토성을 쌓았을 만큼 요지로써의 기능을 수행했다고 판단됩니다. 조선 초기에는 그 곳에 둘 성을 쌓았으며 이후 의병들이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 성이 바로 현재까지 남아있는 홍주성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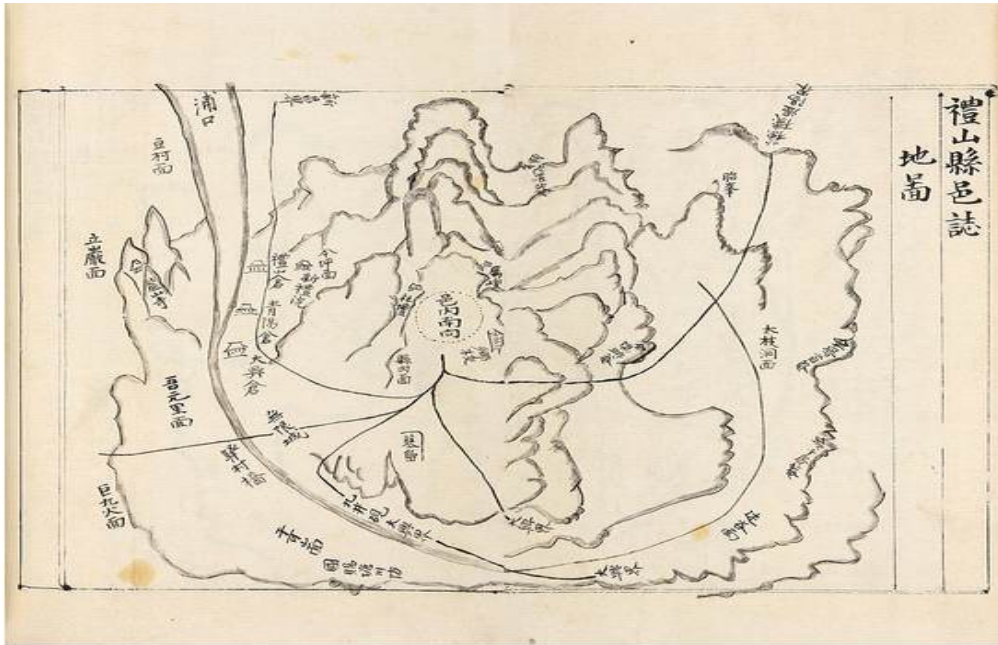
1985년 을미사변이 발생하고 단발령이 내려지자 전직 고관들이 각 지방의 유

생들을 끌어모아 의병을 일으킨 일이 있었습니다. ‘홍주의병항쟁’이 그 것인데, 의병들은 홍주에 창의소를 설치한 후 각 홍주 관할의 각 지역에 의병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인 충돌과 배반 등으로 군열이 가고 한성재판소에서 형벌에 처해졌습니다. 고종의 석방 명령으로 전원 풀려난 후 의병 항쟁은 끝이 나는 듯 했습니다.

11년 뒤 의병에 가담했었던 유생들이 을사늑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 을미사변 당시 관직을 내려놓은 전 참판을 찾아 의병장으로 추대했습니다. 그들은 의병을 모아 현재의 예산군에서 홍주성으로 출발했습니다. 제 2차 홍주 의병이 봉기한 것입니다. 이 2차 홍주의병은 양민까지 포함에 수백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전국 각 지역 의병의 출발점이 되었고 나아가 이 의병 봉기의 시작이 독립전쟁과 3·1운동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홍성이 가지는 역사적인 의의와 가치는 매우 큼니다.

예산 지역개관

14 김태훈



▲ 『호서읍지』에 기록된 예산현의 그림식 지도

이중환은 택리지에서 ‘충청도 내포는 큰 길목이 아니기 때문에 임진년과 병자년 두 차례 난리를 치렀어도 적군이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나 비옥한 평야인데다 생선과 소금이 흔하기 때문에 부자가 많고 대를 이어온 사대부 집안이 많다.’고 예산을 설명합니다. 여기서 내포의 정확한 위치는 택리지에 ‘충청도에서는 내포가 가장 좋다. 공주에서 서북쪽으로 200여리쯤에 가야산이 있다. 서쪽은 큰 바다이고 북쪽은 경기도 바닷가 고을과 큰 못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다. 동쪽은 큰 들판이고 남쪽은 오서산에 가려져 있는데 가야산에서부터 이어져 온 맥으로 가야산의 앞뒤에 있는 10고을을 내포라 한다.’고 전해집니다. 이 내포는 단어 자체로는 바다가 육지 안쪽까지 깊숙이 들어온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현재의 내포를 추정해 보면 홍성, 예산, 당진, 서산, 태안, 보령, 청양, 천안, 아산 그리고 경기도 일부지역을 말합니다.

예산은 본래 백제의 오산현으로 불렸는데, 신라 제35대 경덕왕 때 고산으로 고쳐서 임성군에 속해있는 현이 되었다가 고려 태조 2년(919)에 '예산'으로 그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충남의 중심부에 위치한 예산은 군의 동쪽에는 차령산맥이, 서쪽에는 가야 산맥이 남서쪽으로 달리고 있어 동부와 서부는 산지를 이루며, 중앙부에는 넓은 평야가 형성되어 있고 아산, 당진, 홍성, 공주로 가는 네 갈래의 교통로가 펼쳐져 있어 도로 교통의 중심적, 분기점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좋은 땅, 교통의 요지 예산에 ‘꿈과 좌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춘계답사를 갑니다. 예산은 지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곳이지만 역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특히 이번 답사 주제와 잘 연결되는 여사울 성지와 이존창 생가터는 그들이 정말 원했던 세상과 꿈이 좌절된 모습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곳입니다.

3월 26일

첫째 날

<교훈으로 살아 숨 쉬는 망국의 이야기>

황산벌 전투
부소산성과 낙화암
궁남지

황산벌 전투

14 김현모

황산벌 전투는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계백의 의지가 얼마만큼 강했는지를 보여주는 전투입니다. 물론 전쟁 당시의 상황과 내용이 너무 불리했기에 그의 꿈은 좌절했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백제를 지키다가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졌습니다.

백제의 계속되는 공격에 신라는 위기감을 느끼고 당나라와 손을 잡았습니다. 나당동맹이 결성된 후, 동맹군은 백제를 향해 진격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의자왕은 계백을 시켜 황산벌에서 적을 맞게 했습니다.

계백은 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처자가 적국의 노비가 되어 살아서 욕보기보다는 죽는 것이 낫다.” 라고 하며 가족들을 자신의 손으로 베어버리고, 죽음을 각오하고 전투에 참가하였습니다. 이러한 계백의 각오에 오천결사대 역시 죽음을 각오하고 전투에 임했습니다. 황산벌에서 백제의 오천결사대는 신라의 5만 병사와 마주하였습니다. 이미 승부가 뻔히 보이는 전투였지만 오천결사대와 계백은 나라를 지키겠다는, 죽음을 각오한 신념 하나로 오히려 신라군을 몰아붙였습니다.

하지만 신라의 화랑 반굴과 관창의 희생으로 떨어졌던 신라군의 사기는 일순간에 드높아지고, 두 화랑의 희생으로 정신력을 가다듬은 신라군에 계백을 비롯한 백제군은 황산벌에서 전멸을 당했습니다. 자신의 일가족을 몰살하고 전쟁에 참가한 계백과 조국의 안녕을 위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적진으로 뛰어들어 오천결사대의 의지는, 마찬가지로 죽음을 불사한 신라 화랑들의 희생과 그로 인해 정신적 무장을 한 신라군에 의해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계백과 오천결사대는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지만 애초에 자신들보다 10배나 많은 신라군을 넓은 벌판에서 이기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들이 5천이라는 숫자로 5만의 대군을 상대한 것은 나라를 지킨다는 강한 정신력을 바탕으로 버텨낸 것이었습니다. 황산벌 전투는 비록 백제군이 패배했지만 백제를 지키고자 하는 계백과 오천결사대의 의지를 보여주는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이 정신력은 적장이었던 김유신조차 놀라서 백제 멸망이후 계백의 시신을 찾도록 명했다고 합니다.

황산루에 오르면 당시 백제군과 신라군의 뜨거운 숨결로 가득했던 전장의 현상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비록 지금은 당시의 격렬했던 현장의 공기를 느낄 수 없지만, 조국을 위해 처자식을 포기하고 자신의 목숨을 바친 계백장군과 백제의 용사들을 생각하면 그들의 용기와 애국심에 경건해집니다.

부소산성

14 송주언, 14 전병철

부소산성

웅진으로 천도 후 개혁에 실패한 백제는 성왕이 집권하는 시기에 사비성으로 천도를 했습니다. 웅진에서의 실패를 바탕으로 성왕은 사비에서 중앙 집권적 지배 질서를 강화했습니다. 이 시기가 백제의 마지막 전성기로, 백제는 고구려의 남하정책으로 인해 상실했던 국토 수복과 과거 근초고왕 시기의 위상을 회복하길 꿈꾸었습니다. 이를 위해 백제는 신라와의 동맹관계를 유지하며 고구려의 남침에 대응하는 국방 정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신라와 한강 유역을 두고 대립하게 되고, 나제동맹은 파기되었습니다. 이후 백제는 신라에 칼을 갈며 복수를 다짐하여 신라를 공격했습니다. 이에 위기를 느낀 신라는 당나라와 동맹을 맺고 백제를 공격했습니다. 의자왕은 계백으로 하여금 황산벌에서 적을 맞게 하지만, 이미 여러 번의 전쟁으로 국력이 쇠한 백제는 나당동맹에 의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백제의 야심찬 꿈과 그 꿈의 좌절의 배경이 되는 사비성이 바로 우리가 가는 부소산성입니다. 부소산성은 백제의 부흥을 갈망한 성왕과 그 이후 역대 왕들의 노력이 담긴, 움츠린 백제가 한강 유역을 차지한 신라와 북방을 호령하는 고구려에 대항하여 밖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용기와 기상의 원천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기세에 위기를 느낀 주변국들의 동맹으로 인해 좌절을 맛보는 시련의 공간입니다. 이번 춘계 답사를 통해 부소산성을 둘러보며 비록 시대는 변하고 백제의 꿈은 좌절되었지만 당시 백제인들이 얼마나 백제의 부흥을 염원했는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낙화암에 새겨진 의자왕과 백제

흔히들 의자왕이라고 하면 삼천궁녀를 거느리고 정사에 소홀한 왕이라고 기억되곤 합니다. 그렇다면 의자왕은 정말 무능한 호색가였을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아니다' 입니다. 의자왕은 야심찬 꿈을 꾸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좌절되고 의자왕은 백제의 마지막 왕으로, 백제의 멸망을 지켜본 무능한 왕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의자왕의 꿈은 무엇이며 그 좌절된 현실은 우리에게 어떤 말

을 하는걸까요?

우리가 아는 것과 달리 의자왕은 결코 무능하지 않았습니다. 신라와 전쟁을 벌여 40여 성을 함락시키는가하면 고구려와 손을 잡고 신라를 공격해 당항성을 빼앗는 등 신라와의 주도권 싸움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고, 의자왕이 집권할 때에 백제의 인구와 영토는 늘어났다고 전해집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서 알 수 있듯, 의자왕은 선대가 쌓은 업적을 이어받아 더 큰 백제를 만들려했고 어느 정도는 그것을 실현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꿈은 모두가 알다시피 이루지 못한 채 꺾이고 말았습니다. 이미 설명했듯이 나당 연합에 의해 백제는 그 찬란한 역사를 마칩니다. 백제의 신라에 대한 강경한 태도는 나당동맹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고, 계속되는 전쟁에 국력이 쇠한 백제는 나당 연합군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당나라의 13만 대군의 진격과 5만의 신라군이 연합한 연합군에 백제는 우왕좌왕했고 결국 황산벌 전투에서의 패배, 그리고 웅진성에서의 결사 항전 패배로 인해 700년 왕조가 저물게 됩니다. 낙화암 절벽을 바라보며, 한 나라의 왕으로서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결국 백제 왕조의 마지막 왕, 실패한 왕으로 기억되어야만 하는 의자왕의 기분을 짐작이나마 해 봅니다.

궁남지

14 김예원

수천 년간 세월의 풍파 속에 바위는 깎이고 물길은 변하지만, 천 년 전의 이야기는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입을 통해 끊임없이 오르내리며, 후세에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봄의 끝자락에서 부여는 우리에게 백제의 숨은 이야기를 전합니다. 찬란했던 백제의 마지막을 겪은 낙화암과 무왕의 전설이 살아 숨 쉬는 궁남지에서 우리는 1400여 년 전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신라의 공주를 기이한 재주로 신부로 맞아들인 사내, 서동. 서동은 알라도 무왕은 모른다는 속설이 있을 정도로 서동설화는 유명합니다. 백제가 멸망하기 60년 전 제 30대 왕 무왕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설화는 천한 신분의 사람도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백제의 개방적 사고를 말합니다. 그러나 서동이 무왕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백제의 한 과부가 궁남지란 못가에 살았는데 어찌다 못에 사는 용과 열려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부의 상대가 용이 아니라 지렁이라는 설도 있으니 「삼국유사」에서 ‘지룡교통이생(池龍交通而生)’이라 적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궁남지는 무왕이 즉위하고 지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서동설화가 그다지 신빙성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삼국사기」에서 무왕의 아버지를 법왕으로 적은 점을 보면, 무왕은 법왕의 서자출신 아들일 가능성이 큼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극적인 등극을 한 무왕이었지만, 왕으로서 남긴 업적은 그다지 나쁘지 않았습니다. 증조할아버지인 성왕이 죽고, 위덕왕과 혜왕 그리고 법왕이 뒤를 이었지만, 혜왕과 법왕은 즉위한지 1년 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2년여 사이에 두 왕이 급사를 하였으니 국내정세는 매우 불안하였습니다. 무왕은 빠른 시간 안에 안정을 찾고 국가재건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신라와의 대결에서 무왕은 결코 밀리지 않았습니다. 무왕 3년의 아막산성 싸움을 필두로, 6년(동쪽 변경), 12년(가잠성), 17년(모산성), 19년(가잠성), 24년(늑노현), 25년(신라의 6성 차지), 27년(왕재성의 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승패에서 무왕의 백제 쪽이 다소 우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기세를 이어 무왕은 귀족들의 힘을 눌러 정치 운영에 제동을 걸고자 자신의 본거지인 전라북도 익산으로 수도를 옮길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성왕이 세상을 떠난 이후 급속도로 성장한 사비지역 귀족들의 반대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신라와의 전투과정에서 많은 성을 세우는 바람에 노역에 동원된 백성들의 불만은 가실 날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백제는 점점 마지막을 향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왕은 끊임없이 백제의 부흥을 꾀하는 왕이었습니다.

삼국이 피 말리는 전투를 벌이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무왕은 백제에 하나의 파라다이스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불교에 심취했던 아버지 법왕에 뒤를 이어 미륵사를 세우고 궁궐 남쪽에는 연못을 만들었습니다. 「삼국사기」에서는 ‘왕이 못을 파서 물을 20여리나 끌어들이고, 사방언덕에 버드나무를 심었으며, 물 가운데 섬을 만들어 방장선산(바다 가운데 신선이 사는 3개의 산 가운데 하나)에 비꼈다.’라고 말합니다. 궁궐 남쪽에 무왕이 지었다는 못은 궁남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왕은 궁남지에서 비빔돌과 뱃놀이를 즐겼습니다. 백제의 정세가 그렇듯 한가할 때도 아닌데, 이러한 성향을 보인 무왕을 보며 말년에 향락에 빠진 군주로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향락으로 평가하긴 어렵고, 그가 남긴 궁남지나 미륵사를 볼 때 다른 왕에 비해 높은 심미안을 갖춘 왕 정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재위기간의 막을 내리기 2년 전, 무왕은 마치 자신의 왕위의 마침표를 찍 듯 궁남지를 완성했습니다. 한 평생 전투에서 세월을 보낸 무왕의 마지막 휴식처가 아니었을까요? 지금은 폐망한 국가로 분류되는 백제지만, 한 뎡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며 제국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왕들의 의지가 살아 숨 쉬던 역사입니다.

궁남지로 들어가는 연 꽃밭 사이에 오솔길에서 다른 시간 속에서 같은 공간을 걷던 무왕의 발걸음에 포개며, 단절된 백제의 역사를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3월 27일

둘째 날

<피탈, 그러나 부흥의지는 아직 살아 숨 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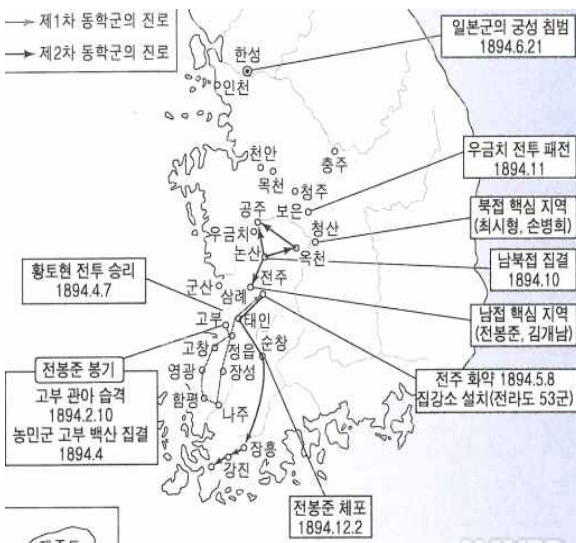
우금치 전적
공산성
송산리 고분군
숙모전

우금치 전투

14 오명희

전봉준이 이끈 동학농민 운동은 아래로부터의 개혁이라는 점에서 가장 큰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농민군은 관군을 상대로 큰 승리를 이끌기도, 집강소라는 기구를 설치하여 여러 개혁안을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농민군의 영광은 조일 연합군에 의해 공주 우금치에서 끝이 났고, 현재 우금치에는 남은 전적비만이 덩그러니 남아 이들의 비참했던 최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로부터의 혁명, 동학농민운동



▲동학농민군의 진격로

1894년 2월, 전라도에서는 '보국안민! 탐관오리 숙청!'이라는 외침과 함께 혁명의 횃불이 높이 떠올랐습니다. 전봉준을 주축으로 한 이들은 모두 고부 군수였던 조병갑의 횡포를 견디다 못해 농민군을 자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가 잘 사는 세상, 자식들을 더 이상 굶기지 않는 세상을 원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잇속만을 챙기려는 탐관오리로 가득 찬 정부는 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대

로 된 무기도 갖추지 않은 농민군을 철저히 무력으로 짓밟으려 했습니다.

황토현과 황룡촌에서의 전투에서 농민군이 대승을 거두면서, 전주성에 이르게 되자 조선 정부는 농민군 진압을 위해 청군에 도움을 요청하는 순진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데, 여기서 일본은 청과의 조약을 운운하며 함께 조선에 입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이미 정부는 이들과 전주화약을 맺었고, 전라도 53군현

집강소 설치 및 동학농민군 해산에 대한 합의가 완료된 이후였습니다. 이렇게 동학농민운동의 불꽃은 점점 꺼지는 듯싶었습니다.

청나라와 함께 입국했던 일본은 일본군에 대한 조선정부의 요구를 무시한 채, 고종을 협박하여 갑오개혁을 추진하고 청나라 군함을 급습하여 조선 땅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모습을 엿했습니다. 그러자 이에 분노한 농민군은 척왜를 부르짖으며 다시 몽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전의 농민군은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혹은 생계를 위해서 싸워나갔습니다. 하지만 다시 몽친 이들은 비로소 국력이 땅에 떨어진, 자신들의 국가를 지키기 위해 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남 북쪽이 모두 봉기하면서 규모는 더욱 커졌고, 불완전했지만 군사의 형태를 띠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들은 공주 주변에서 관군과 여러 차례 부딪혔고 이렇게 재정비를 끝냈습니다. 이들은 효포와 능치, 그리고 이인을 점령하면서 우금치를 향한 길을 신중히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이들을 대하는 태도는 아주 치밀하고 교묘했습니다. 일본은 스파이를 보내고 대대를 분할하여 파견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선군까지 합세하여 우금치에 진을 치니, 농민군으로서는 속수무책의 상황이었습니다. 농민군의 손에 든 낫과 죽창으로는 이들의 총칼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농주의 남동쪽으로 후퇴했고, 10만에 가까운 농민들은 피 흘리며 죽어갔습니다. 녹두장군 전봉준은 그해 12월 배반자의 밀고로 순창에서 체포되어 사형 당했으며, 농민군의 꿈은 이렇게 역사의 한편으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우금치 전투는 농민군이 벌인 전투 가운데 최대 규모였으며, 나아가 동학 농민운동이 실패한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농민군이 가진 가장 큰 무기는 나라를 위한다는 신념이었고, 근대적 군사체계와 신식무기로 무장한 일본을 상대로 농민군이 승리를 거머쥐는 것은 어찌면 이미 불가능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비록 이들은 이곳 우금치에서 패하여 뿔뿔이 흩어졌지만, 직접 개혁안을 제시하고 집강소라를 기관을 만들게 했던 모습에서 이들의 자주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제시한 조항은 이후 갑오개혁의 폐정개혁안과 신분제 폐지에서 빛을 발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동학농민운동은 민중이 중심이 되었던 반봉건 근대적 민족운동으로서, 그리고 반(反)침략적 민족운동으로서 가치를 지니는 매우 중요한 혁명운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동학농민운동은 비극적 결말을 맞았지만, 자신의 안위에서 나아가 외세로부터 국가를 지키려했던 이들의 숨결은 지금까지도 우금치고개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공산성



▲배산임수 지형의 공산성

14 송주언

공산성은 백제시대 때 만들어진 산성으로, 당시에는 웅진성이라고 불리었습니다. 문주왕 1년(475)년부터 성왕 16년(538)까지 백제의 수도였던 공주를 방어하기 위해 축조된 산성입니다.

백제는 근초고왕 이후로 고구려에 맞서 당당하게 국가의 위상을 세우고 중국, 일본 등과 활발히 해상 교역을 통해 명성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고구려가 광개토대왕 대에 이르러 왕성한 정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광개토대왕이 북쪽으로 영토를 넓혔다면 장수왕은 남쪽으로 영토를 확장하고자 했는데, 문주왕의 아버지 개로왕은 이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 장수왕의 남침을 맞아 한성을 지키다가 장렬히 전사했습니다. 신라로 구원을 요청하러 갔던 문주는 돌아와 왕위에 오르지만 한성은 이미 함락되어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고구려는 한강 이북으로 철수했지만 여전히 아차산에 보루를 만들어 군사를 주둔시키고 있었습니다. 고구려군의 주둔에 부담을 느낀 문주왕은 백제 재건의 칼을 갈며 웅진으로 천도를 했습니다. 고구려의 남하정책으로 인해 근초고왕 대의 위상을 되찾으려던 백제의

꿈은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백제는 쓰린 마음으로 고구려에 의해 웅진으로 쫓겨 갔습니다.

천도 이후 동성왕과 무령왕은 혼란한 국가적 상황 속에서도 백제 중흥의 기반을 일구어 냈습니다. 웅진으로 천도하며 신흥 세력으로 떠오른 금강 유역권 지배층을 중앙 귀족으로 흡수하여 한성에서 내려온 기존의 귀족들과의 융화를 꾀했습니다. 또한 도읍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하여 궁궐을 새로 건축하는가 하면 나성(안팎 2중으로 구성된 성곽에서 안쪽의 작은 성과 그 바깥의 도시까지 감싼 바깥쪽의 긴 성벽)을 축조했습니다. 왕이 사는 궁궐과 도성의 모양이 갖춰져야 비로소 왕권이 바로 서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대외 정책을 통해 고구려를 견제하였습니다. 당시 백제는 남제, 왜와의 동맹을 통해 고구려, 북위, 신라의 동맹에 대항하였는데, 동성왕은 기존의 국제 관계의 틀을 깨고 신라, 가야와 동맹을 주도하여 고구려의 남하 정책에 맞섰습니다. 남쪽으로는 산이 둘러싸고 있고 북쪽으로는 금강이 흐르는 배산임수 지형인 웅진으로 천도한 백제의 결정에서도 비록 지금은 고구려에 쫓겨 가지만 훗날 기필코 한강 유역을 수복하겠다는 백제의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웅진 천도는 약 한 달여의 준비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고구려의 압박에서 벗어나고자 서둘러 천도를 하다 보니 군사적 측면에서는 방어하기에 용이해졌지만, 그 부작용이 속속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웅진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신흥 세력과 한성에서 내려온 기존 세력 간의 대립이 문제였습니다. 동성왕은 두 세력의 조화를 꾀하였지만, 두 세력은 각각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르다 보니 자연스럽게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귀족들의 권력 다툼으로 정치가 불안해지고 이는 왕권 약화로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금강 유역에는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였습니다. 결정적으로 웅진은 그 터가 너무 작아 한 국가의 도읍지로서의 기능을 다하는 데에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백제는 웅진에서 근초고왕 대의 전성기를 다시 한 번 구가하고 개로왕의 한을 풀고자 했던 의지의 64년을 뒤로 하고, 성왕 16년(538) 사비로 천도를 단행했습니다.

사비로 천도한 이후 백제는 나당 연합군에 의해 국가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연합군이 사비성을 위협하자 의자왕은 공산성에 들어와 항전하지만, 버티지 못하고 끝내는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문주왕이 백제 재건의 야심과 아버지의 복수라는 독기를 품고 터를 잡았던 공산성. 5명의 왕이 64년 동안 백제의 중흥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지만 사비로 천도해야 했고, 아이러니하게도 이후 백제의 마지막을 지켜본 성이 바로 공산성입니다. 공산성의 성곽을 둘러보며 백제의 중흥을 꿈꾸었던 백제 백성들의 꿈과 염원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나타났는지를 볼 수 있습니

다. 왕 뿐이 아니라 백성 한 명 한 명의 정성으로 만든 공산성에서 우리는 그들의 소망의 크기를 알 수 있습니다.

송산리 고분군(무령왕릉)

14 정승우

백제의 역사는 나라가 망국이 되려는 위기와 그 위기를 극복하려는 왕들의 노력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역사입니다. 따라서 백제의 왕들은 좌절된 꿈들을 다시 일으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웅진천도입니다.

일보 전진을 위해 일보 후퇴한 웅진천도는, 한강유역을 빼앗겨 과거 전성기의 영광을 다시 누리려던 백제의 꿈이 좌절된 백제가 반격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백제의 웅진천도는 위기의 백제를 구한 적절한 천도로 평가받는다.

송산리 고분군

백제가 문주왕, 삼근왕, 동성왕, 무령왕, 성왕까지 64년간 도읍지로 삼았던 곳인 웅진에 조성된 왕족들의 무덤입니다. 송산리 고분군의 무덤들은 1927년 처음 조사가 되었는데 그 당시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그냥 백제의 왕릉이라고 여겨왔습니다. 그러다 이 송산리 고분군이 백제의 왕릉이라는 명백한 사실로 바뀌게 된 것은 1971년 무령왕릉의 발견 때문입니다. 송산리 고분군엔 20여기의 고분이 있는데 아직도 송산리 고분군에서 주인이 분명히 알려진 것은 무령왕릉 뿐입니다. 무령왕릉을 주변으로 10여기의 고분이 있는데, 이것들을 모두 왕릉으로 보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주인이 분명한 무령왕릉으로 미루어 볼 때 이외의 무덤 중에는 왕만이 아니라 왕과 관련된 사람들이 피장된 경우도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만일 백제의 웅진도읍기 왕릉으로 송산리 고분군이 유일한 것이라면 나머지 고분들에서 미확인 왕릉이 추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분군은 횡혈식 석실분(시신을 묻기 위해 널길을 통해 무덤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돌로 쌓아 만든 돌방무덤)의 경우 공룡식(돛 모양으로 무덤의 천장을 만들어 놓은 것)인 초기형만 있고, 벽돌무덤으로 무령왕릉과 6호분이 있는데 초기형인 공룡식 다음에 나타나는 형태입니다. 무령왕릉에 사용된 벽돌과 6호분에 사용된 벽돌이 비슷하다는 것을 볼 때, 두 무덤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 졌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전의 무덤에서는 볼 수 없었던 송산리 고분군의 벽돌무덤의 기원은 중국에

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백제의 벽돌무덤은 아마도 동성왕 혹은 무령왕대에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 수용된 무덤 양식으로 보여지며, 송산리 고분군의 존재는 백제 중기의 고분 문화를 밝히는 데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고구려에 의해 한성이 함락되면서 백제는 와신상담의 마음가짐으로 천도를 결심했습니다. 백제는 웅진 천도 후에 국가 경영을 정상적으로 돌리기 위해 노력하고 한편으로는 한성의 수복을 위해서 고군분투했습니다. 이처럼 고구려에 의해 좌절된 국가의 꿈이, 비록 쫓기듯이 물러났지만 아직까지 그 열정이 남아있는 듯합니다. 송산리 고분군은 이러한 왕들의 꿈에 대한 열정이 묻힌 역사적인 곳입니다.

무령왕릉

송산리 고분군의 가장 유명한 고분으로, 유일하게 주인을 알고 있는 무덤입니다. 무령왕이 집권할 당시 백제는 한강 유역을 고구려에게 빼앗긴 뒤, 쫓기다시피 웅진으로 내려온 직후였습니다. 근초고왕 시절의 국제적 위상을 되찾고자 했던 백제의 꿈은 장수왕의 남하정책에 의해 좌절되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무령왕은 백제의 좌절된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무령왕은 우선 신진 귀족과 기존 귀족들의 세력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이를 통해 무령왕은 정치적 안정을 찾았고, 이는 왕권의 강화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수리시설을 확충하고, 한성에서 내려온 유민들을 통해 금강 유역과 호남평야의 비옥한 토지를 개간하였습니다. 이는 조세 확보의 기반이 되었으며 경제 회복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또한 지방 세력에 대한 통제력 강화를 위해 22담로(백제의 지방 행정 조직)에 왕족들을 파견하였습니다. 이 역시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대내적으로 안정을 찾은 무령왕은 달솔(백제의 16관등 중 제2위의 품관) 우영을 보내 고구려 수금성을 공격하는 등, 국방 문제에 있어서 고구려에 공격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와의 전투에서 여러 번 승리하며 개로왕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주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고구려를 견제하기 위해 중국 남조의 양나라와 왜에 사신을 보내 외교를 강화하였습니다. 양나라-백제-왜로 이어지는 3국의 문화교류의 중심역할을 하면서 백제는 성공적인 외교정책 뿐 아니라 엄청난 문화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처럼 무령왕은 고구려에 의해 꿈이 좌절된 백제의 암울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못 다 이룬 꿈을 이루기 위해 무던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노력은 수 세기가 지난 지금 우리의 두 눈에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무령왕릉이 가진 벽돌무덤이라는 특이한 구조를 통해 당시 무령왕이 양나라와 교류하였다는 사실

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전에는 백제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무덤 양식이 양나라와의 교류를 처음으로 시작한 무령왕의 능에서 나타났다는 것은 무령왕이 양나라와 활발한 교류를 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무령왕릉의 그 웅장한 자태에서도 우리는 당시 무령왕의 왕권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무령왕릉묘지석에는 왕의 죽음을 ‘봉’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에 천자에게만 허락되는 용어였습니다. 그럼에도 무령왕의 죽음을 ‘봉’이라 한 것은 무령왕이 대내적으로 강력한 왕권을 가졌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렇듯 무령왕릉은 무령왕의 전 대에 좌절되었던 꿈이 무령왕 대에 이르러 다시 그 희망의 싹을 틔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백제는 무령왕에 의한 대내적, 대외적 안정을 기반으로, 좌절되었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는 무령왕릉을 통해 백제의 좌절되었던 꿈 속에 한 줄기의 희망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숙모전

14 김경현, 14 백인탁

‘숙모전(肅慕殿)’은 공경할 숙(肅)자에 그리워할 모(慕)를 쓰는데, 한자를 풀이해보면 ‘공경하고 그리워하다.’라는 뜻으로 단종과 그의 충신들의 위패를 모시고 있는 곳입니다. 이 숙모전의 원래 이름은 계룡산의 동학사 내에 있는 초혼각(招魂閣)이었습니다. 1728년(영조 4)에 동학사가에 화재가 나고, 1864년(고종 원년)에 절을 증건할 때 재건되었는데 1904년에 숙모전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단종의 부인이었던 정순왕후도 함께 모시게 되었습니다. 1456년 6월에 김시습이 단종 복위운동을 도모하다 노량진에서 죽은 사육신의 시신을 강가에 몰래 묻고 동학사로 돌아와, 삼은각(三隱閣) 옆에 단을 만들어 사육신의 혼을 불러 제사를 지낸 것이 초혼각의 유래라고 전해집니다.

단종은 정치적 격동기에 태어난 비운의 왕입이었습니다. 단종이 활동하던 시기는 계유정난과 그 후로 약 20여 년 동안 5차례의 공신책봉이 있었을 만큼 정치적 격변기였습니다. 그 시초는 세종이 6조직계제 대신 의정부서사제를 실시하면서 왕권보단 신권이 점점 커지게 된 것인데, 문종이 요절하고 어린 단종이 제위에 오르면서 김종서·황보인 등의 신권과 수양대군이라는 야심 많은 종친 간의 정치적 싸움구도가 형성되었습니다.

결국 야망에 찬 수양대군은 ‘안평대군이 김종서 등과 함께 왕위를 빼앗으려고 모의를 했다’는 명분을 내세워 자신의 정적들을 하나둘씩 제거했습니다. 이 사건이 계유정난(1453)이고 이것을 시작으로 수양대군은 점차 정치적인 힘을 키워나갔습니다. 결국 단종은 1455년 윤6월 11일 자신보다 힘이 센 숙부인 수양대군에게 왕권을 넘겨주게 되고 자신은 상왕으로 물러났습니다.

사육신을 중심으로 단종 복위운동이 일어나자 세조는 집현전을 혁파하고 단종을 노산군으로 강등시켜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보냈습니다. 단종이 영월로 유배를 간 뒤에 금성대군은 순흥으로 귀양을 갔는데, 영월과 순흥은 서로 이웃한 곳이었습니다. 이에 금성대군은 이보흠과 군사를 일으켜 상왕인 단종을 맞이하기로 모의했습니다. 그러나 격문을 빼앗겨 고발을 당해 금성대군과 이보흠은 관군에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 결과 단종은 노산군에서 서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세조는 어린 조카인 단종에게 사약을 내리고 단종은 숙부에게 배신당한 채로 그렇게 쓸쓸히 죽어갔습니다.

이런 기구한 삶에도 불구하고 단종은 충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단종 복위운동을 전개하다 죽은 사육신이나 생육신은 후대에도 많이 알려진 충신들입니다. 생육신은 사육신과 달리 목숨을 잃지 않고 살았지만 평생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고 세조의 즉위를 부도덕한 찬탈행위로 규정하거나 비난하며 초야에 묻혀 살다간 사람들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단종의 폐위와 죽음을 슬퍼하며 세조 정권에 반기를 들었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단종은 비록 기구한 삶을 살았지만 곁에는 여러 충신들이 있었습니다.

노산군은 숙종7년에 노산대군으로 추봉되고, 이어 24년에 단종 임금으로 복위했습니다. 사육신들도 이때에 신원되었고, 생육신들도 숙종 때에 복관했습니다. 비록 단종 복위를 위해 노력했던 사육신의 의지는 당시에 시작도 해보기 전에 좌절되었지만 후대 사람들은 그들의 충절을 높이 샀습니다. 그 결과 이들의 충절은 아직까지 남아서 숙모전에 온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3월 28일

셋째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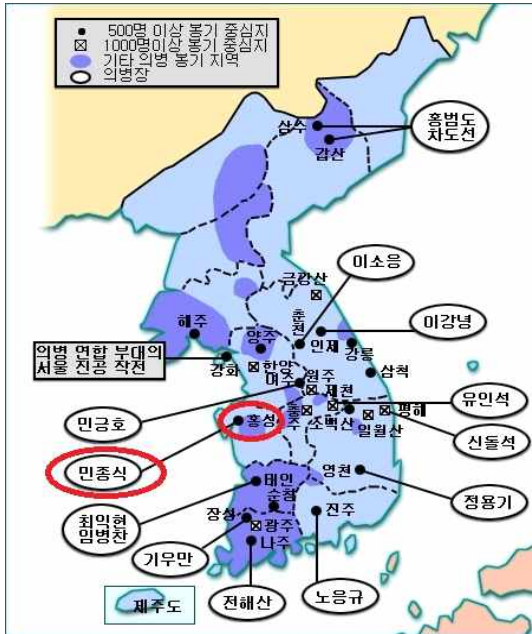
<죽은 뒤에 핀 꽃>

홍주 의사총
성삼문 유허지
여사울 성지와 이준창 생가터

홍주 의사총

14 차재현

을사의병과 홍주 의사총



▲을사의병 당시의 의병항쟁

홍성 홍주 의사총은 을사의병 당시 홍성 내의 2차례에 걸친 의병항쟁에 희생되었던 의병의 유해를 모신 곳입니다. 당시 일제의 조선침략행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자 조선 곳곳의 백성들은 구국의 병운동을 일으켜 나라를 위해 싸웠습니다.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홍주지역에서도 이조참판 민중식을 중심으로 항일 의병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나라를 되찾기 위한 그들의 꿈을 이루려는 의지가 의병항쟁이라는 형태로 발현된 것입니다. 민중식은 박토 10여 두락을 팔아 5만냥을 군자금으로 지원해 의병을 적극적으로 이끌었습니다.

홍성지역에서 일어난 의병운동은 농민과 유생 등 다양한 신분이 섞여있었습니다. 이는 일제가 비슷한 시기에 요구했던 황무지개척권과 한일신협약이 조선민중의 삶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처럼 다양한 신분의 참여는 의병운동이 사회 전체적으로 확산되었다는 것을 시사하며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열망이 계급에 상관없이 널리 퍼져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홍주성 의병은 국제적으로 고립된 환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임진왜란 때의 의병은 관군과 명나라의 정신적, 물질적 지원 하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미국과 영국, 그리고 관군이 일본군을 돕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홍주 의병들은 1906년 남포와 보령에 있는 일본군을 습격해 무기를 노획하는데 성공했고 기세를 타 3월 20일에 홍주성을 함락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홍성군수 이교석과 이주승도 의병에 동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군이 진입한다는 소

식을 듣고는 의병들의 홍주성 입성을 막아버려 의병부대와 갈등을 만들었고 결국 의병부대와 관군간의 교전이 일어나 1차 홍주성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전투 끝에 의병이 5월 19일에 홍주성을 함락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최신식 대포와 소총으로 무장한 일본군이 5월 25일부터 침입해 2차 홍주성 전투가 일어났는데, 대포로 공격하는 일본군의 공격을 견디지 못하고 수백 명의 의병이 전사하면서 홍주의병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홍주성 전투는 중기의병 중 최대의 전과를 올렸으며 단일 전투로는 최다수의 희생자를 낸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홍주성 전투는 의병전쟁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도화선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때 전사한 의병 수백 명의 유해가 대교리 일대의 냇가와 주변 산지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광복 후 1949년부터 홍성 군민들의 도움을 받아 유해를 지금의 의사총에 거두어 안장해 지속적으로 장례를 치르며 한을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창의사에는 이때 희생된 900명에 달하는 의병분들의 위패를 봉안되어 있기에 900의총이라고 불리게 되었고 1992년에 홍주 의사 총으로 이름을 바꿨으며 2001년 8월 17일 사적 제 431호로 지정되었습니다.

비록 홍주의병이 실패하며 그들의 꿈은 좌절되었으나, 의병분들의 나라를 지키려는 굳은 뜻과 뜨거운 피는 아직까지 우리 곁에서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홍주의병에 투신했던 안병찬, 박창로, 이만식, 맹달섭 등은 경기도와 충청남도 일대에서 항일투쟁을 지속했으며 이들의 활동은 1910년대 대한광복회 등 항일비밀단체의 활동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계급과 신분에 신경쓰지 않는 단결심과 애국심은 정미의병, 김좌진 장군의 청산리 대첩, 나아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조직한 대한광복군의 민족주의 항일투쟁과 김원봉선생의 사회주의 독립운동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또한 홍주의병에 참여했던 조선 민초들의 저항정신은 3.1운동으로 이어졌고 이는 조선을 넘어 제3세계의 민족주의까지 크게 자극했습니다. 이렇듯 을사의병의 일환이었던 홍주의병의 정신과 신념은 국적과 세대를 막론해 계속해서 이어져 왔으며 지금에 이르러서는 대한민국 헌법의 근본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전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의병들의 조건 없는 희생과 백성들을 위해 싸운 신념이 있었기에 우리들은 지금 이 자리에 서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홍주 의병운동의 저항정신이 지금 이곳에서 살아 숨 쉬고 있음을, 우리들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삼문 유허지

14 백인탁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육신’하면 신의와 충절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만큼 6명의 충절은 후대에까지 사람들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 성삼문 선생은 세종이 직접 집현전 학사로 배속시킬 정도로 뛰어난 인재였습니다. 성삼문은 세조의 계유정난에 맞서 단종 복위운동을 일으키는 주역입니다. 비록 단종 복위운동이 실패하였지만 성삼문은 부러질지언정 굽히지 않는 대나무 같은 충정을 보인 존경스러운 인물입니다.

문종이 요절하고 단종이 어린 나이에 즉위하자, 정국은 수양대군 대 김종서·황보인 등 종친과 조정대신 간의 대립구도가 형성되었습니다. 수양대군은 권력을 잡기 위해 계유정난을 일으켜서 김종서와 황보인을 역적으로 몰아 죽이고, 이들과 동조했다는 모함을 씌워서 동생인 안평대군을 유배시켰습니다. 그 후 수양대군은 모든 실권을 잡았고 계유정난에 일조해 정난공신에 오른 사람들은 조정의 요직을 차지하였습니다.

이상한 것은 정난 3등 공신에 성삼문의 이름이 올라간 것이었는데, 그 이유는 세종대부터 집현전에서 국정 운영의 이념과 원리를 제공하였던 집현전 학사들을 위무(위로하고 어루만져 달랠)하고 자신의 찬위가 정당하다는 명분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국 성삼문이 정난공신에 봉해진 것은 수양대군의 정치적 술수였던 것입니다.

수양대군이 조카인 단종을 겁박해서 선위반자 성삼문은 더 이상 현실정치에 침묵하는 것은 도리에 어긋난다고 생각, 단종 복위운동을 획책했습니다. 성삼문은 박종림·박팽년·유응부·허조·권자신·이개·유성원 등과 단종 복위운동을 모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거사에 차질이 생겨 함께 모의했던 김질은 거사 내용을 세조에게 밀고하고, 주모자들이 모두 잡혀가 군기감 앞에서 거열형을 당했습니다. 가족 중 부녀자는 공신들에게 하사되었고, 토지는 일체 몰수됐습니다.

주모자들을 모두 잡아들이고 세조가 직접 성삼문을 심문하기를, “무엇 때문에 나를 배반하는가?” 하니, 성삼문이 “옛 임금을 복위시키려는 거요. 하늘에 태양이 둘이 없으며 어찌 백성에게 두 명의 군주가 있겠소. 나으리가 남의 나라를 빼앗았소.”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세조를 가리켜 ‘나으리(종친에 대한 호칭)’라 칭하고 뽕뽕하게 모의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이어 세조가 말하기를, “너는 나의 녹을 먹고도 배반하였으므로 명분은 상왕을 복위시킨다 하지만 실은 스스로 정권을 차지하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묻자, 그는 말하기를, “상왕께서 계신데 나으리가

어찌 나를 신하라 하십니까? 또 나으리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으니, 나를 믿지 못한다면 내 자산을 몰수해 헤아려 보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형을 당한 뒤 그의 집을 살펴보니 1445년 이후부터의 세조가 준 녹봉이 고스란히 쌓여 있었고, 집안에는 남은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모진 고문을 당했으나 조금도 굴하지 않고 세조의 불의를 타박하고 신숙주에게는 세종과 문종의 당부를 배신한 불충을 크게 꾸짖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고문 후 수레에 실려 나오면서 “너희들은 어진 임금을 도와 태평성대를 이룩하라. 나는 지하에서 옛 임금을 모시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죽기 전에 쓴 ‘절명시’에서도 성삼문의 충절이 나타납니다.

그의 이러한 대쪽 같은 충심과 의지는 가벼운 인간관계가 만연하고 모든 것에 금방 질려 새로운 것을 찾는 현대 젊은이들이 본받아야 할 덕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사울 성지와 이존창 생가터

14 강정인

충청남도 문화재 제178호로 지정된 여사울 성지는 한국 천주교회 역사 안에서 천주교 신앙의 못자리로 평가받는 한국 천주교의 중심지입니다. 이곳은 내포지역에 처음으로 천주교 복음을 전파한 초기 순교자 이존창(루도비코, 1752~1801)의 생가가 있는 곳으로 내포지역 천주교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존창은 한국 최초의 신부인 김대건 신부의 조상들에게 천주교를 전파했고 천주교 발전과 종교의 자유를 위해 힘썼던 한국 천주교 역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인물입니다. 이존창이 천주교를 믿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그의 신분적 제약과 관련된 문제로, 천주교가 평등을 강조한다는 점이 그에게 와 닿았습니다. 그러한 가르침을 통해 그는 보다 현실적인 평등을 추구하였고, 천주교의 가르침으로 온 세상이 평등해지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그의 고향 내포지역으로 내려가 복음을 전파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고향 여사울에는 그의 친척이 30명 정도 있는데, 그들과 그 동네 주민들은 그의 첫 전교대상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영세를 주고 입교시킴으로서 내포지역에 그들만의 신앙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내포지역에 자리 잡은 천주교는 양반중심이 아닌 일반 양인이 주도하는 체계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였는데, 이 신앙 공동체는 여러 박해를 겪으면서 점점 더 탄탄해지면서 경상도뿐만 아니라 강원도 쪽으로 확산되어 나갔습니다. 이존창은 이러한 내포지역의 천주교 신앙공동체에 가장 큰 역할을 기여한 인물입니다. 그는 천주교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일반 양인출신인 그는 조선사회에서 새로운 사상인 천주교에 관심을 가지면서 내포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진보성 개방성으로 맞추어나가려 했습니다. 그는 신앙공동체를 기반으로 내포지역 민중들에게 새로운 모습의 조선사회를 만나게 해주는 것을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일반 양인 출신인 이존창이 계속적으로 글을 배우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에게 닥친 현실적인 문제는 바로 군역의 부담이었는데, 그로 인해 그가 추구하는 학문의 길이 좌절될 위기해 처해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존창은 서울의 정약종과 긴밀히 교류하고 밀사를 중국 북경에 보내며 신앙의 자유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등 한국천주교회사에서 주목할 만한 일들을 꾸준히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활발한 전교활동에도 불구하고 신해박해 때 배교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신유박해 때 다른 순교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당시 외국인과

내국인 모두에게 유명했던 그는 박해자의 함정을 피하기가 힘들었고 공주에서 붙잡힌 후 옥에 가뒀을 때 마음이 흔들려 배교 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배교는 내포 신앙공동체에서 가장 슬프고 창피스러운 배교로 뽑힌다. 하지만 그 당시에 배교자들이 많았던 사실과 가혹한 문초과정에서도 신자들을 밀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존창에게 인간적인 동정심을 느끼게 합니다. 또한, 비록 배교를 했지만 그가 죽음을 통하여 신앙의 새로운 모범을 보여주었다는 점은 변명의 여지를 남깁니다. 게다가 배교를 진실로만 믿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들이 눈앞의 고문이 두려워 거짓으로 배교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박해를 모면하기 위해 배교자로 가장한 것이 천주교에 대한 입장과 믿음을 저버린 것이라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후에 포교활동을 하기 위해 거짓으로 배교를 했을 지도 모를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천주교는 세계적으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유일무이한 형태로 생겨한 종교입니다. 보통 종교는 선교사의 전도활동으로 정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천주교는 서학이라는 학문으로 들어와 유학자들이 실학으로서 그 학문을 연구하던 중, 하느님에 대한 간절한 동경과 천주학이 참 진리라고 생각해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조선 후기에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를 믿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신분제도와 농민에 대한 양반의 수탈에 불만이 가득했던 백성들이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사상을 바탕으로 한 천주교의 사상을 접하게 되면서 인간평등을 꿈꾸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난과 불평등한 사회 속에서 의존할 곳이 없던 가난한 백성들 사이에서 천주교는 유일하게 그들이 기댈 수 있는 존재였고, 이러한 이유로 그들 사이에서 천주교는 널리 유포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사회는 천주교를 믿는 것을 금지시키고 백성들을 억압하였는데, 그 이유는 천주교가 유교와 성리학을 중시하던 우리나라의 정서와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교와 조상을 중시하는 조선 사회에서 천주교는 제사를 금했습니다. 게다가 당시는 잦은 외세의 침략 때문에 쇄국정책이 펼쳐진 시기였기에, 병인양요로 특히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프랑스에서 온 학문인 천주교는 배척의 대상이었습니다. 또한 혼인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천주교 성직자들의 모습은 조상님께 불효를 하는 것이라고 여겨졌으며, 한국인의 뿌리인 단군을 부정하는 것 역시 당시 조선 사회의 통념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국가의 입장에서 보자면, 백성들이 우리의 전통인 굿이나 신화 등은 배척하면서 서양의 것을 믿고 따르는 모습은 나라에 대한 배신이었습니다. 따라서 조선은 천주교 신자들을 본보기로 박해하고 처형하며 나라의 질서를 잡으려 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4대 천주교박해가 있었습니다. 최초의 천주교 박해인 신해박해를 시작으로 기해박해, 신유박해, 그리고 병인박해가 그 것입니다. 그 중에서

도 신유박해(辛酉迫害)는 1801년에 순조가 왕위에 오르면서 남인과 시파를 일망 타진 하기위해 그들이 옹호했던 천주교를 탄압한 사건입니다. 이 박해로 선교사 주문모와 이존창을 비롯한 천주교인 100여 명이 처형되고 정약용, 이승훈을 포함한 약 400명의 신도들이 유배되었습니다. 이존창은 배교에 대한 주문모 신부의 깨우침에 순교를 준비하며 이후 내포지역에 순교한 신자들의 길을 뒤따르고자 하였습니다. 그는 서울에서 심문을 받은 후 공주에서 처형되었습니다. 그는 그 시대 사회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신앙인이었고 그의 노력으로 인해 지금까지도 천주교는 한국에서 가장 많은 신자를 보유한 종교 중에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는 내포신앙공동체 신자들의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한 간절한 바람과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00여년에 걸친 천주교 박해 속에서도 신앙의 자유와 평등한 사회를 위해 믿음을 잃지 않고 기꺼이 목숨을 희생한 신자들의 거룩한 영혼이 깃는 여사울 성지에서 한국 천주교의 역사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백제 멸망과 의자왕에 대한 오해

사나래(역사를 찾는 사람들)

I. 서론

II. 본론

1. 의자왕 재위 15년간의 상황
2. 의자왕과 백제 멸망의 요인
3. 의자왕에 대한 기록과 재평가

III. 결론

IV. 참고문헌

I. 서론

‘좌절된 꿈, 곧은 뜻, 뜨거운 피, 아직 살아 숨 쉰다’라는 2015년 춘계답사주제와 연관되어 가장 적절한 주제로 ‘백제 멸망과 의자왕에 대한 오해’로 정하였다. 백제의 멸망으로 인한 의자왕의 좌절된 꿈에 대해서 알아본다면 사학과 학우들에게 그 꿈을 알아보고 그 꿈이 답사를 간 학우들 안에서 숨 쉴 것이다. 지금까지 의자왕과 백제의 멸망에 대해 이루어진 연구들은 내적으로는 의자왕의 왕권 강화에 귀족층들이 반발하고, 이로 인해 백제 지배층이 흔들린 것이 백제 멸망의 원인이라고 본다. 이와 동시에 외부적으로는 백제가 이러한 내부분열을 겪고 있을 무렵 나당연합군이 침입하여서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백제 멸망의 이유를 좀 더 깊이 탐구하고 정확히 의자왕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알아보려 한다. 의자왕이라는 인물은 삼천궁녀를 거느린 호색한이라고 해석되기도 하고, 내부 권력 기반을 다진 왕으로도 해석되기도 한다. 이렇듯 다양한 해석을 하는 인물을 가지고서 백제의 멸망을 탐구해봄으로서 역사 해석의 오해를 풀어 보고자한다.

II.본론

1.의자왕 재위 15년간의 상황

백제 무왕의 맏아들인 의자왕은 641년 제 31대 왕으로 재위에 올라 20년간 백제를 다스리다가 660년 나당 연합군의 침입을 받아 무기력하게 나라를 빼앗겨 백제 멸망의 주범으로 꼽히곤 한다. 그러나 의자왕은 왕위에 올라 15년간 왕권 강화를 위해 친위 정변을 통한 정적 제거와 유학의 장려, 대야성 함락과 당항성 공격으로 상징되는 백제 영토 확장 등의 눈부신 업적을 이루었다.¹⁾

우선 의자왕은 자신의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 힘썼다. 의자왕은 즉위하기까지 근친 세력과 귀족세력의 심한 견제를 받아야 했다. 이에 의자왕은 즉위 초기, 정국 운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친위정변을 일으킨다. 640년 대좌평 사택지적을 권력의 핵심에서 축출, 이어 곧바로 교기를 비롯한 정적들을 추방하며 왕권 강화의 토대를 마련하였다.²⁾ 한편, 민심 수습을 위해 국내를 순무하며 정상을 기록, 죽을죄를 지은 죄수를 제외하고는 죄를 사하여 주는 등 내부 권력의 기반을 다지었다. 이렇게 의자왕은 귀족과 근친 세력의 영향력을 차단, 국내 정치의 안정을 추구하며 아버지 무왕의 정책을 계승, 신라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였다.

642년 7월 의자왕은 왕권의 위엄을 과시하고자 직접 군사를 이끌고 신라를 공격, 미후성을 비롯한 신라의 40여 성을 함락시켰다는 기록이 있다. 미후성을 비롯한 40여 성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함양, 거창, 산청을 제외한 옛 가야지역으로 생각된다.³⁾ 이처럼 의자왕은 무왕의 동진정책을 계승하여 옛 가야지역 진출을 위해 공세를 펼쳤다. 의자왕은 이에 그치지 않고 대야성을 향한 공세를 시작한다. 대야성은 낙동강 서쪽지역의 전략적 요충지로서, 백제가 장악하지 못한 신라의 마지막 보루였다. 따라서 대야성 전투를 백제의 옛 가야지역 정복을 위한 공세가 절정에 달한 사건이라 평가하기도 한다. 의자왕은 6장군 윤충으로 하여금 1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대야성을 공격하도록 하였고 결국 대야성은 함락되었다.⁴⁾ 대야성 정복으로 인해 의자왕은 낙동강의 옛 가야지역 대부분을 차지하고 신라 경주로 진출할 수 있는 전진기지를 마련하였다.

내부권력을 다지고, 외부적으로도 영토를 확장하던 의자왕은 당나라와의 관계도

1) 문안식, 「의자왕 전반기의 신라 공격과 영토확장」, 『경주사학』 제23호, 경주사학회, 2004, 2쪽.

2) 문안식, 「의자왕은 친위정변과 국정쇄신」, 『동국사학』 제23호, 동국사학회, 2009, 25쪽.

3) 40성의 위치를 낙동강 이서의 대부분 지역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다.(이도학, 『새로 쓰는 백제사』, 푸른역사, 1997, 213쪽.

4) 문안식, 「의자왕 전반기의 신라 공격과 영토확장」, 『경주사학』 제23호, 경주사학회, 2004, 9쪽.

공을 들었다. 즉위한 해부터 5년간 지속적으로 당나라에 조공을 보내며 관계를 다졌고, 왜와도 우호관계를 유지하였다.

이처럼 의자왕 집권 전반기 15년간 백제와 신라는 곳곳에서 치열한 접전을 벌였으나 전쟁의 주도권은 분명 백제에게 있었다. 하지만 집권 15년을 넘어가면서 의자왕 치세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 요인을 알아내기 위해 당시 백제의 상황을 대내적, 대외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

2. 의자왕과 백제멸망의 요인

i. 대내적 요인

의자왕 집권 후기에 정치가 흔들리고 백제멸망까지 이르게 한 대내적 요인은 정치세력의 변동으로 인한 사회의 혼란이다. 우리는 먼저 의자왕 후기에 일어난 정치세력의 변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의자왕의 집권 초기 정치세력부터 살펴볼 것이다.

의자왕대 전기 정치세력은 무왕대 이후 지속된 정치세력이 변화하는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의자왕은 무왕 33년에 태자에 책봉되었다. 하지만 그가 태자에 책봉되었을 당시 나이가 30여 세에 이를 것으로 추정 되고 무왕의 재위기간 중에서도 비교적 말기에 해당하는 시기에 이루어졌다. 이 점은 그의 태자책봉 과정에서부터 상당한 반대세력이 존재하며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무왕 전기에는 무왕의 세력기반이었던 익산세력을 중심으로 한 국정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무왕 후기에 들어서 익산세력이 쇠퇴하고 사씨세력이 강력해 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씨세력의 중심점 역할을 했던 이가 사택 황후의 아들로 추정되는 의자왕이었다. 사씨세력은 의자왕이 왕위에 오른 후에도 의자왕을 견제하며 지속적인 활동을 보였다. 5) 의자왕의 즉위 후 근친왕족과 외척세력의 저항은 그치지 않았다. 따라서 의자왕은 정적 제거와 왕권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였다.

<가> 2월 丁亥 초하루 戊子 阿曇山背連比羅夫, 草壁吉士磐金, 倭漢書直縣을 백제조문사의 處所에 보내어 그곳 소식을 물었다...백제 조문사의 從者 등이 지난 해 11월 大佐平 智積이 죽었습니다...금년 정월에 國主母가 죽었고, 또 아우 왕자의 아들(弟王子兒) 翹岐와 母妹女子 4명, 內佐平 岐味 그리고 이름 높은 사람 40여 명이 섬으로 추방되었습니다 라고 하였다(일본서기권24, 황극천황 원년).⁶⁾

5) 장미애, 「의자왕대의 정치세력의 변화와 대외정책」, 『역사와 현실』 제85호, 한국역사연구회, 8쪽.

6) 장미애, 「의자왕대의 정치세력의 변화와 대외정책」, 『역사와 현실』 제85호, 한국역사연구회,

사료 <가>는 의자왕의 즉위 직후에 일어난 친위정변이다. 의자왕은 640년에 대좌평 사택지적을 권력의 핵심에서 축출하였다. 사택지적이 축출된 후 3개월 만에 사씨왕후가 사망에 이르렀고 권력의 증추였던 교기 등이 추방당하였다. 7) 이처럼 의자왕의 집권 전기에는 귀족중심의 정치체제에서 벗어나 왕권을 강화하려는 의자왕과 귀족 중심 정치운영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근친왕족과 외척세력이 첨예하게 갈등을 빚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 되다가 의자왕 집권 후기에 백제 내부에서 대외정치에 관한 의견 차이를 보이며 정치세력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다. 645년 당의 고구려 원정 시에 신라는 3만의 대군을 동원하여 고구려를 공격하며 당을 도왔다. 하지만 백제는 당에 군수물자만 지원하고 오히려 신라를 공격하여 7성을 빼앗음으로써 고구려를 도와주는 결과를 낳았다. 이로 인해 당과 백제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의자왕은 652년부터 대당 외교의 실패를 만회할 새로운 동맹세력을 모색했다.⁸⁾ 의자왕이 당과의 외교를 포기하고 고구려와 왜와의 동맹에 치중하는 외교정책에 치중하자 자신의 지지 세력이었던 성충 등과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었다. 성충 등은 대국인 당과의 불화를 원하지 않았고 대신라공격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이렇게 자신의 정책이 자신이 가장 믿고 의지했던 지지 세력에게서 강력하게 비판을 받게 됨에 따라 의자왕은 인간적인 고뇌에 빠지고 주색을 탐하고 탐락하는 모습도 보이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의자왕 전기 세력으로 추정되는 성충, 홍수 등은 왕의 음탕탐락에 대해 간하였다가 죽거나 귀양을 가게 된다. 이는 의자왕 전기 세력들이 중앙 정계에서 밀려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의자왕의 집권 후기에 은고와 충승, 상영을 비롯한 세력들이 새롭게 국정운영을 장악했다. 이러한 정치세력의 재편은 백제 내부에서 갈등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정치세력의 변화와 지배층의 분열은 백제 내부의 정치적, 사회적인 분위기를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국력을 쇠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가 되었다.

ii. 대외적 요인

의자왕 집권 후기인 7세기 중반은 나당동맹과 제려연합의 본격적 대결인 동아시아 국제전이 일어난 시기이다. 치열했던 국제전 결과 나당동맹이 백제의 장군

9쪽.

7) 문안식, 「의자왕의 친위정변과 국정쇄신」, 『동국사학』 제47호, 동국사학회, 2009, 15쪽.

8) 남정호, 「의자왕 후기 지배층의 분열과 백제의 멸망」, 『백제학보』 제4호, 백제학회, 2010, 8쪽.

계백이 거느린 5000여명의 결사대를 황산벌에서 격파하고 백강(白江:錦江 하류)으로 침입해 백제군을 격파한다. 이로 인해 660년(의자왕 20)에 사비성이 함락되고 의자왕은 적군에 항복하게 된다. 의자왕이 항복한 이후에도 백제 부흥군이 끊임없이 나당동맹에 대항하였지만 백제는 결국 멸망하게 된다. 우리는 백제의 마지막 왕, 의자왕이 집권기 후기에 실시했던 대외정책을 살펴보면 백제멸망과 의자왕과의 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무왕대 후반부터 당과 고구려의 대결구도가 본격화되면서, 백제는 양대 세력 중에서 한쪽을 선택해야만 하였다.⁹⁾ 의자왕 초기에는 고구려와 신라의 당항성 공격을 도모하는 한편 대당외교를 실시하는 등 양면외교를 지속하였다. 그러던 중에 당이 고구려 원정에 나서자 백제는 무구류 현상 등 소극적인 원조만을 하면서 신라를 공격하였으나 신라는 군사 3만을 파견해 적극적으로 원조하였다.¹⁰⁾ 이 결과 백제는 당의 신뢰를 잃게 되었고 상대적으로 신라는 당과의 신뢰를 쌓아갔다. 반면 고구려원정 과정에서 양면외교가 드러난 백제는 대당외교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기가 어려웠다. 당은 이미 신라의 입장만을 수용하면서 고구려와 백제의 연합을 사실로 인식하고 있었다. 백제의 끊임없는 공격을 받던 신라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당에게 구원외교를 펼치며 철저한 사대정책을 시도한다.¹¹⁾ 결국 신라는 나당동맹을 이끌어 내면서 후에 당군의 파병을 요청하게 된다.

한편 끊임없는 관계개선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대당외교가 파탄에 이르자 백제 의자왕은 고구려·왜와의 연합을 강화하였다. 고구려의 사신파견이 654년에 재개되고 왜도 고구려와 백제에 사신을 파견하고 교류를 하며 백제·고구려의 연합에 가담하여 활동하였다. 의자왕이 대외정책을 실시한 이유는 아마도 고구려가 지속적인 당의 공격에 시달리느라 백제의 위기에 신속히 대처하기 어려울 경우에 왜가 유사시 대처해 줄 수 있는 후원세력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의자왕은 이 동맹을 유지하며 계속해서 신라를 공격하고 백제의 영토를 되찾으려고 노력하였다. 위와 같은 외교정책이 이어지다가 백제는 황산벌전투에서 패배해 멸망의 길을 걷게 된다. 의자왕 재위 16년의 상황에서는 대신라 공격정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자 신라는 위협을 느껴 결국 당군의 파병을 요청한다. 당시 당 태종은 고구려 공격의 실패를 회복하기 위해서 고구려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을 시도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이때 신라의 요청을 받아들여지게 되고 고구려에 대해

9) 정동준, 「7세기 전반 백제의 대외정책」, 『역사와 현실』 제46호, 61쪽~66쪽.

10) 三國史記 卷21, 高句麗本紀9 寶臧王4年 5月, 三國史記 卷5, 新羅本紀5 善德王 14年 5月. 정동준, 「7세기 중반 백제의 대외정책」, 『역사와 현실』 제61호, 한국역사연구회, 2006, 4쪽에서 재인용.

11) 양종국, 「백제의 멸망과 신라의 삼국통일-역사적 평가에 대한 재조명-」, 『역사와 역사교육』 제10호, 웅진사학회, 2005, 23쪽

일방적으로 공격했던 전술을 바꾼다. 당은 백제를 점령하고 나서 그곳을 발판으로 남북에서 고구려를 공격하기 위한 작전으로 변경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 그 결과 당은 의자왕 20년(660)에 나당동맹을 맺어 당군의 파병을 결정하고, 백제를 공격한다.

이 당시 백제에서도 당군 혹은 신라군과의 전투를 계획하고 있었다. 하지만 의직이나 상영 등 지배세력들의 의견충돌이 있었고 전술에 관한 홍수의 의견에 대하여 반론과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와 같은 논쟁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당의 소정방은 덕물도에서 출발하여 해안을 타고 내려왔으며, 신라군은 남천정에서 금돌성으로 이동한 뒤에 탄현을 거쳐서 황산 별판으로 이동하였다.¹²⁾ 백제는 중앙정부의 의견대립으로 혼란한 상황에 처해있었기 때문에 지방에 있던 각 군의 행동에 대한 명령체계가 제대로 운용되지 않아 당과 신라의 비밀스러운 이동을 알아채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7월 9일에 백제는 신라군이 황산별로 들어섰을 때에야 이들의 이동로를 파악하게 되었고 계백으로 하여금 5000명의 결사대를 이끌고 나가 막게 하였다. 황산별에서 계백이 거느린 5000명의 백제군과 김유신이 이끄는 5만명의 신라군이 전투를 벌이게 된다. 처음에는 계백의 결사대가 우세했으나 김유신의 화랑을 이용한 전술로 계백은 패배하게 되었다. 계속된 전투가 이어지다가 7월 11일 신라군과 당군이 연합하여 12일에 사비성을 공격하였고 백제군 1만명이 사망하게 된다. 이후 의자왕은 13일에 사비성을 빠져나와 웅진성으로 피난하였으며, 18일이 되어서 투항함으로 해서 백제는 멸망하였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백제 멸망에 대해 의자왕이 당을 포기하고 고구려·왜와의 연합을 선택한 것이 국제 정세 인식 부족에서 기인한 실책이었고 그 결과로 멸망하였다는 지적이 많다. 하지만 이것과 더불어 고구려·왜와의 연합을 선택하였어도 보다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지 못한 것이 실책이자 멸망의 대외적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황산별 전투 과정에서 각국의 내부혼란으로 인해 고구려·왜 중 어느 쪽도 긴급하게 구원군을 파병하지 못했다고 한다. 구원군이 긴급하게 파병되어 전쟁을 장기적 국제전으로 이끌었으면 애초에 고구려를 염두에 두고 참전한 당군의 철수를 유도했을 가능성이 크다. 나당동맹에 비해 제려연합은 상대적으로 협조체계가 느슨했다.¹³⁾ 백제의 멸망과정은 실제 전쟁의 과정이 10일 내외일 정도로 매우 짧은 기간에 이루어졌다. 이것은 나당동맹이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면서 기습적으로 공격한 까닭도 있지만 백제가 당시 혼란했던 대내적 상황과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대외적으로도 적군에 비해 대비가 소홀했다

12) 박노석, 「백제 황산별 전투와 멸망 과정의 재조명」, 『인문과학연구』 제27호,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0, 7쪽.

13) 정동준, 「7세기 중반 백제의 대외정책」, 『역사와 현실』, 제61호, 한국역사연구회, 2006, 23쪽.

는 점도 작용한 결과이다.

3. 의자왕에 대한 기록과 재평가

백제 망국의 책임자라는 위치에서 의자왕은 자연스레 역사가들의 긍정적인 평가와는 거리가 멀었다. 망국의 마지막 왕이라는 관심이 다른 방면의 업적에 대한 관심을 상대적으로 위축시켰고, 인물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부정적인 방향으로 바꾸는 작용을 하였다. 역사적 실책들이 그에 대한 화제들을 단순화, 획일화시킨 것이다.

역사서로 현대 고대역사연구에서 중요한 사료로 사용되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역시 의자왕의 부정적인 모습을 강조하여 서술되어 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서술한 김부식과 일연은 신라의 삼국통일이라는 업적을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하였기 때문에 이를 강조하기 위하여 망국인 백제의 역사는 대비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었다.

『삼국사기』에서 김부식은 통일군주인 문무왕과 망국의 군주인 의자왕을 비 중 있게 기술하여 칭송과 경계의 뜻을 확실히 하였다. 의자왕은 삼국사기의 권 제28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큰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¹⁴⁾ 이에 그치지 않고 특별히 사론까지 첨가하여 역사의 교훈으로 삼고자하는 모습을 보인다.

『삼국유사』에서 의자왕과 백제 멸망에 대한 기록은 권 제1의 태공춘추공조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이 삼국사기 백제본기에서 의자왕 15년부터 20년 사이의 여러 기록들과 거의 유사하다.¹⁵⁾ 두 기록이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의자왕이 향락에 빠지는 시기에 대한 부분이다.

<나> 16년(서기 656) 봄 3월, 임금이 궁녀들을 데리고 음란과 향락에 빠져서 술 마시기를 그치지 않았다. 좌평 성충(成忠)[혹은 정충(淨忠)이라고 한다.]이 적극적으로 말리자, 임금이 노하여 그를 옥에 가두었다. 이로 말미암아 감히 간언하는 자가 없어졌다. (삼국사기 권 제28 신라본기 제6)

<다> ...이때에 百濟의 末王 義慈는 곧 虎(武)王의 元子로, 雄猛하고 膽氣가 있으며 어버이에게 효도하고 兄弟에게 友愛하므로 사람들이 海東의 曾子라 일컫기까지 하였는데, 貞觀十五年(정관15년) 辛丑에 卽位한 후로는 酒色에 빠져 政事가

14) 허원기, 「삼국사기의 문학사적 성격과 의미」, 『동방학』 제25호,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12, 2쪽.

15) 김상현, 「一然의 一統三韓 認識」, 『신라문화』 제38호,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원, 2011, 228쪽.

거칠고 나라가 위태하였다. (삼국유사 권 제1 태종춘추공)

삼국사기에 의하면 의자왕은 즉위 16년에 궁인들과 주색에 빠져 즐기고, 술 마시기를 그치지 않아 성충이 간언을 했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삼국유사에서는 왕위에 오르자, 주색에 빠져 정사가 문란해져 나라가 위태롭게 되었다고 서술하여 마치 의자왕이 즉위한 직후부터 주색에 빠진 것처럼 그의 실정을 크게 부각시키고 있다. 이처럼 일연은 의자왕의 실정을 부각시켜 신라왕의 업적과 대비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신라가 역사적 승자가 됨에 따라 패자인 백제와 마지막 왕인 의자왕을 격하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기술된 당시의 평가가 그대로 이어져 의자왕은 주색잡기에 열중하여 일국을 멸망시킨 주범이라는 보편적인 인식이 만연해졌다. 그러나 이는 이후 의자왕과 백제멸망에 대하여 새롭게 연구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고, 의자왕을 재평가하려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우리 역시 앞에서 살펴본 의자왕의 행적을 바탕으로 그에 대한 나름의 재평가를 해보고자 한다.

재위 기간 중 전기에 의자왕은 외적을 견제하고, 자신의 왕권을 공고히 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태자로 즉위할 때부터 견제를 많이 받았던 의자왕은 항상 왕권을 강화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즉위 후 당시 가장 유력했던 사씨세력과 첨예한 갈등을 이루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했다. 즉위 직후 일어난 ‘친위정변’은 왕권 강화에 대한 의자왕의 확고한 의지를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의자왕 전기에 옛 가야지역을 획득하려는 여러 전투가 있었다. 이를 위한 친위정변을 통해 국가 내부적으로 세력 변화가 있었음에도 여러 전투를 치루고,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기록에서 그가 어느 정도 왕권강화에 성공하였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위와 같이 의자왕은 즉위 초임에도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이후 대외적인 부분에서는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당과 고구려 사이에서 양면외교를 진행하고자 했지만, 오히려 이를 반대하는 자신의 세력과 갈등을 빚었다.

<라> 16년 3월에 왕이 宮人(궁인)과 더불어 淫荒(음황)·耽樂(탐락)하여 술 마시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佐平(좌평) 成忠(성충) [혹은 淨忠(정충)이라고도 함] 이 極諫(극간)하니, 왕이 怒(노)하여 獄中(옥중)에 가두었다..... 죽음에 임하여 上書(상서)하기를 반드시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무릇 用兵(용병)에는 반드시 그 地理(지리)를 살펴 택할 것이니, (江(강)의) 上流(상류)에 처하여 敵(적)을 맞이한 후에야 保全(보전)할 수 있습니다. 만일 다른 나라의 군사가 (쳐)오면 陸路(육로)에서는 沈峴[침현:忠南(충남) 大德郡(대덕군) 馬道嶺(마도령)]을 넘지 못하게 하고 水軍(수군)을 伎伐浦[기벌포:지금 長項(장항)] 沿岸(연안)에 들어오지 못

하계 하소서..... 왕이 돌보지 아니하였다. (삼국사기 권 제28 신라본기 제6)

<마> 唐兵(당병)은 乘戰(승전)하여 城(성)으로 육박하니 왕은 벗어나지 못할 것을 알고 탄식하며 말하기를, "成忠(성충)의 말을 듣지 않고 이에 이른 것을 후회한다" 하고 드디어 太子(태자) 孝(효)1310)와 함께 北邊(북변)1311)으로 도망하였다. (삼국사기 권 제28 신라본기 제6)

사료 <라>는 의자왕이 음향에 빠져 있자, 성충이 의자왕에게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금강하류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기록이다. 의자왕이 향락에 빠져 있자 이를 깨우쳐주고자 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이 대외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성충이 의자왕의 사생활문제가 아닌 정견차이로 인해 반대하다가 옥에 갇히게 된 것으로 해석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은 660년 나당 연합군이 쳐들어 왔을 때 의자왕이 비로소 후회했다는 사료<마>의 내용을 통해 성충과 의자왕 사이의 문제가 대외적인 정치노선을 둘러싼 견해 차이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III. 결론

후대에서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역사기록을 대할 때, 특히 패망한 국가 혹은 군주에 대하여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의자왕에 대한 기록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나타나 있지만, 이는 역사의 승자인 신라를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다.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신라의 삼국통일에만 집중함으로써 사라지거나 왜곡된 백제와 고구려의 진실 된 모습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재조명 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후대의 기록에 의해 흔히 백제 멸망의 주범으로 불리는 의자왕이 과연 백제 멸망을 주도한 탐닉한 왕인지, 아니면 승자의 기록에 가려져 제대로 조명 받지 못하는 왕인지 알아보고자 했다.

의자왕은 강한 의욕을 가지고 집권초기부터 왕권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외적으로도 당 중심의 국제질서에 얽매이지 않고 과감히 양면외교를 펼치는 정책을 펼쳤고 이는 동아시아 국제 관계에서 흔히 볼 수 없었던 독자적인 모습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강경한 외교정책이 결과적으로 나당연합이 맺어지는 결과를 낳았고, 대내적으로도 반대하는 세력과 갈등을 빚으면서 백제 멸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국제 정세 인식의 부족을 멸망의 대외적 원인 중 하나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의자왕은 왕권 강화를 하려고 하였으나 시기나 정치적 요건에 의해서 실패한 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사료에 나타난 의자왕의 행적에 대한 내용을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그에 대해

재평가해보았다. 나름의 사료 분석을 통해 재평가를 내렸지만, 의자왕에 대한 사료는 양적, 질적인 면에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의자왕을 완전히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와 같은 역사기록에만 충실하다 보니, 분석의 기반이 되는 자료들이 의자왕의 부정적인 면에 치우친 사료들이었다. 이처럼 편벽된 사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삼국유사』와 『삼국사기』뿐만이 아니라 구전자료, 설화 등 보다 다양한 자료를 이용하여 의자왕을 분석하고 평가해보려는 시도가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1. 지역개관 논산

이중환, 『택리지』

한국문화유산답사회, 『답사여행의 길잡이4』, 돌베개, 초판 1995, 20쇄 2012

2. 지역개관 부여

국사편찬위원회

김건곤·김태환, 『동국여지승람 제영 사전(군현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4

신형식, 『백제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92

3. 지역개관 공주

국사편찬위원회

김건곤·김태환, 『동국여지승람 제영 사전(군현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4

4. 지역개관 홍성

한국문화유산답사회, 『답사여행의 길잡이4』, 돌베개, 1995

5. 지역개관 예산

이중환, 『택리지』, 을유 문화사

6. 황산벌 전투

서근덕, 「계백의 황산벌 전투와 역사적 평가에 관한 연구」, 건양대학교 학위논문, 2003

박노석, 「백제 황산벌 전투와 멸망 과정의 재조명」,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0

서정석, 「백제 산성을 통해 본 황산벌전투의 현장」, 역사교육연구회, 2004

윤일영, 「황산벌 전투 : 황산원·삼영·삼도의 위치, 전투배치·경과·결과」, 대전대학교 군사연구원, 2010

7. 부소산성과 낙화암

박경옥, 『새가정사』, 「낙화암과 정신대」, 새가정462, 1995.

이덕일, “[이덕일 사랑] 의자왕과 삼천궁녀”, 조선일보, 2006

8. 궁남지

로드스콜라 학생과 선생, 『백제의 길, 백제의 향기』, 호미, 2011

양종국, 『백제 멸망의 진실』, 주류성, 2004

9. 우금치 전투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한국 동양정치사상사」 제 2권 제 2호, 2003

한국사 시민강좌 편집위원회, 『한국사 시민강좌』 제40집, 일조각, 2007.2

10. 공산성

안정수,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감옥에서 외친 독립과 민주 (대한민국 구석구석: 한국관광공사의 아름다운 대한민국 이야기)』, 한국관광공사, 2012

허문명, “[김지하 시인에게 듣는다]“국고는 서민이 헐벗어 바친 세금… 그걸 때 먹어? 죽어야지”, 동아일보, 2013.01.09.

국방일보, “통국의 미루나무와 사형장”, 국방일보, 2014.08.12.

11. 송산리 고분군

서경수, 「일본 사회의 일본군위안부 인식과 역사교과서 서술」, 국회도서관, 2004.

윤소은, 「위안부문제에 관한 연구 : 일본정부의 인식 및 태도 변화에 대한 연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2.

이덕일, “[이덕일 사랑] 의자왕과 삼천궁녀”, 조선일보, 2006

신유리, “유엔, 일본 사죄 미흡 비판 “‘위안부’ 대신 ‘강제 성노예’ 용어 써라”, 여성신문, 2014.07.18.

12. 숙모전

김영미, 「대한민국 수립 이후 신익희의 활동과 노선」,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한문학연구실, 2013.

배성동, 「한국정치의 민주적 발전과제 : 그 첫째--한 민주적 지도자의 정치적 생애 해공 신익희(海公 申翼熙)」, 명지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1998.

13. 홍주 의사총

김상기, 『한말의병연구』, 일조각, 1996 참조.

윤병석, 『의병과 독립군』,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7

문화재관리국, 『문화재대관』, 한국문화재보호협회, 1992

김상기, 『1906년 洪州義兵의 홍주성 전투』, 한국근현대사학회, 2006

14. 성삼문 유허지

조용옥, 『우리 역사문화의 갈래를 찾아서』, 역사공간, 2011

황의동, 「제 1부 청소년의 교육문화와 가치관 교육: 매죽헌 성삼문의 의리정신과 정치사상」, 『청소년과 효문화』, 2권0호, 한국청소년효문화학회, 2002

김경수, 「세조대 단종복위운동과 정치세력의 재편」, 『사학연구』, 제83호, 한국사학회, 2006.9

15. 여사울 성지와 이존창 생가터

이성무 이회진, 『다시보는 한국사』, 청아출판사, 2013

이성무, 『조선왕조사』, 수막새, 2011

한국사사전편찬회, 『한국근현대사사전』, 가람기획, 1990

16. 사나래 세미나

김상현, 「一然의_一統三韓_認識」, 『신라문화』 제38호,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원, 2011.

남정호, 「의자왕 후기 지배층의 분열과 백제의 멸망」, 『백제학보』 제4호, 백제학회, 2010.

문안식, 「의자왕 전반기의 신라 공격과 영토확장」, 『경주사학』 제23호, 경주사학회, 2004.

문안식, 「의자왕의 친위정변과 국정쇄신」, 『동국사학』 제47호, 동국사학회, 2009.

박노석, 「백제 황산벌 전투와 멸망 과정의 재조명」, 『인문과학연구』 제27호,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0.

양종국, 「백제의 멸망과 신라의 삼국통일-역사적 평가에 대한 재조명-」, 『역사와 역사교육』 제10호, 웅진사학회, 2005.

이도학, 『새로 쓰는 백제사』, 1997, 푸른역사.

장미애, 「의자왕대의 정치세력의 변화와 대외정책」, 『역사와 현실』 제85호, 한국역사연구회, 2012.

정동준, 「7세기 중반 백제의 대외정책」, 『역사와 현실』 제61호, 한국역사연구회, 2006.

허원기, 「삼국사기의 문학사적 성격과 의미」, 『동방학』 제25호,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12.

ENDING CREDIT

지도 교수님

이상국 교수님
김태승 교수님
조성을 교수님
김종식 교수님
김봉철 교수님

편집자

14 송주언
13 김지영
13 김경엽

제작자

역사기행반
사나래(역사를 찾는 사람들)

And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

아주대학교 사학전공 소학회
역사기행반
2015. 3.

